

. 제10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2022.05.09 - 06.24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 동일 연령대 청소년 참가 가능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나눔공모전.com
* 단체 접수는 우편 접수 가능

응모주제 “나눔은 OO이다”

응모일정 공모기간 05.09 월 - 06.24 금
심사기간 07.11 월 - 09.16 금
수상자발표 10월 중
시상식 11월 중

응모부문 글 / 이미지 / 영상
◆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하기
◆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방법 소개
◆ 환경을 지키는 나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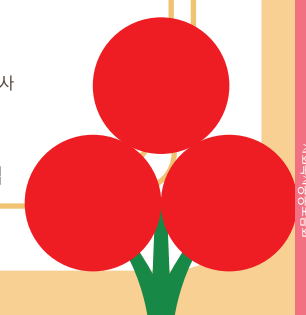
시상내역	교육부장관상	4명(팀)
	시도교육감상	5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60명(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상	17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상	400명(팀)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954-130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나눔공모전

주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부

후원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홍보대사 미술사 최현우님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2 2022 JUNE



202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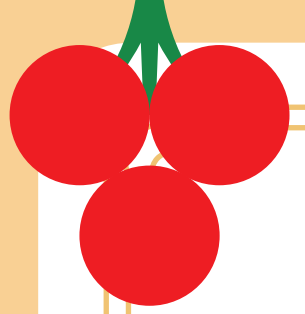
떡볶이로 사랑을 전합니다

착한가게로 지낸 10년
감탄떡볶이 만수시장점
박상희 대표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 제10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2022.05.09 - 06.24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 동일 연령대 청소년 참가 가능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나눔공모전.com
* 단체 접수는 우편 접수 가능

응모주제 “나눔은 OO이다”

응모일정 공모기간 05.09 월 - 06.24 금
심사기간 07.11 월 - 09.16 금
수상자발표 10월 중
시상식 11월 중

응모부문 글 / 이미지 / 영상

- ◆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 ◆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하기
- ◆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방법 소개
- ◆ 환경을 지키는 나눔이야기

시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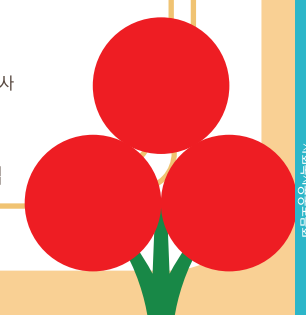
교육부장관상	4명(팀)
시도교육감상	5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60명(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상	17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상	400명(팀)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954-130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나눔공모전

주최

후원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홍보대사 미술사 최현우님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2 2022 JUNE



202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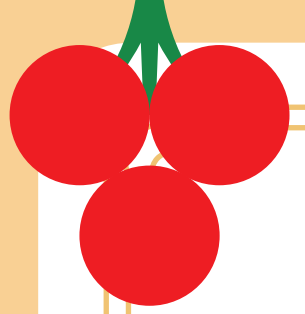
그리운 어머니께 바치는 '나눔' 사모곡

어머니를 기억하고자
울산 111호 아너에 가입한
(주)코리아에어터보
조희숙 대표이사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 제10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2022.05.09 - 06.24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 동일 연령대 청소년 참가 가능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나눔공모전.com
* 단체 접수는 우편 접수 가능

응모주제 “나눔은 OO이다”

응모일정 공모기간 05.09 월 - 06.24 금
심사기간 07.11 월 - 09.16 금
수상자발표 10월 중
시상식 11월 중

응모부문 글 / 이미지 / 영상

- ◆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 ◆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하기
- ◆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방법 소개
- ◆ 환경을 지키는 나눔이야기

시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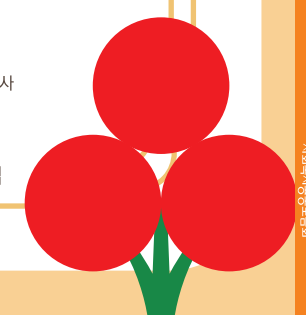
교육부장관상	4명(팀)
시도교육감상	5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60명(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상	17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상	400명(팀)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954-130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나눔공모전

주최  

후원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홍보대사 미술사 최현우님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2 2022 JUNE



202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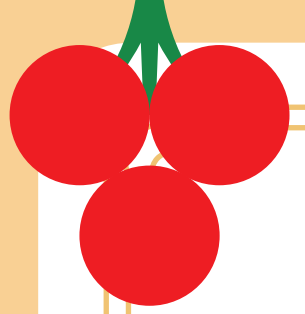
나눔으로
조직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하다

11년 째 직원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주)에람 강사돈 대표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 제10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2022.05.09 - 06.24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 동일 연령대 청소년 참가 가능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나눔공모전.com
* 단체 접수는 우편 접수 가능

응모주제 “나눔은 OO이다”

응모일정 공모기간 05.09 월 - 06.24 금
심사기간 07.11 월 - 09.16 금
수상자발표 10월 중
시상식 11월 중

응모부문 글 / 이미지 / 영상

- ◆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 ◆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하기
- ◆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방법 소개
- ◆ 환경을 지키는 나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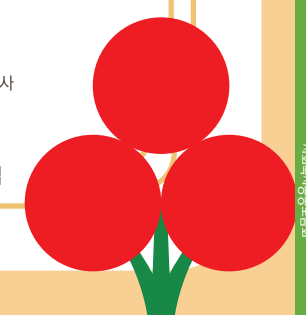
시상내역	교육부장관상	4명(팀)
	시도교육감상	5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60명(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상	17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상	400명(팀)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954-130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나눔공모전

주최

후원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홍보대사 미술사 최현우님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2 2022 JUNE



2022 06

꿈과 희망을 굽는 청년들

하이트진로(주) 지원으로
문을 연 광주 베이커리카페
빵그레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suamam1921



이렇게 조그마한 저희 아이가 기부를 하고 싶다며 저금통을 들고 왔어요~ 스액이지만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착한 마음씨로 사람들을 돕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기부천사 #사랑의열매

_ariranghoy



아홉 명의 예술가를 응원합니다.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크라우드펀딩
#발달장애인예술가
#선유문화공방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도마 #병아리도마

nice_myj



#사랑의열매
1년 12번, 12년 144번째.
나 좀 기특한 듯!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천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천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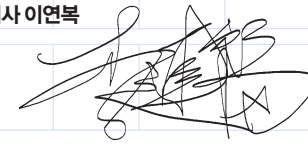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어딘가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다 보면 결국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이연복



이연복 셰프님은 2018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사랑의열매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연복 셰프님은 유기견 입양과
봉사 활동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2 2022. 06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상단부터) 자녀들과 함께 지역 간식 봉사를 이어가는 감탄떡볶이 만수시장점 박상희 대표와 막내 박서현, 둘째 박서희, 첫째 박서하양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6월 / 통권 182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모두의 나눔

영원한 초록별을 위해

오늘의 지구를 지킵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프레시스 플라스틱 서울 프로젝트

‘플라스틱 방앗간’

14

내 인생의 한마디

(주)스타테크 박원균 회장

18

착한 열매슬랭

그야말로 다 맛있는 전주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나눔리더로 기부 동참한

세종점자도서관 이준범 관장

24

착한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희망의 징검다리 되다

28

나눔 이슈 ①

차세대 나눔문화 주역, 13인의

신입 직원

30

나눔 이슈 ②

사랑의열매 나눔총서

32

클라우드펀딩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인천·강원·경기·경기북부·서울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2 2022. 06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고인이 된 어머니를 기억하고자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주)코리아에어터보 조희숙 대표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6월 / 통권 182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모두의 나눔

영원한 초록별을 위해
오늘의 지구를 지킵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프레시스 플라스틱 서울 프로젝트
'플라스틱 방앗간'

14

내 인생의 한마디

(주)스타테크 박원균 회장

18

착한 열매슬랭

그야말로 다 맛있는 전주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나눔리더로 기부 동참한
세종점자도서관 이준범 관장

24

착한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희망의 징검다리 되다

28

나눔 이슈 ①

차세대 나눔문화 주역, 13인의
신입 직원

30

나눔 이슈 ②

사랑의열매 나눔총서

32

클라우드펀딩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울산·경북·경남·부산·대구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2 2022. 06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착한일터부터 나눔명문기업,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까지 지역의
나눔을 이끄는 (주)예람 강사돈 대표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6월 / 통권 182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모두의 나눔

영원한 초록별을 위해
오늘의 지구를 지킵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프레시스 플라스틱 서울 프로젝트
‘플라스틱 방앗간’

14

내 인생의 한마디

(주)스타테크 박원균 회장

18

착한 열매슬랭

그야말로 다 맛있는 전주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나눔리더로 기부 동참한
세종점자도서관 이준범 관장

24

착한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희망의 징검다리 되다

28

나눔 이슈 ①

차세대 나눔문화 주역, 13인의
신입 직원

30

나눔 이슈 ②

사랑의열매 나눔총서

32

클라우드펀딩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전·충북·충남·세종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2 2022. 06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빵그레 선요주 단장,
빵그레 공장팀 이현민 팀장, 매장팀 장지영,
공장팀 양지선, 매장팀 장혜지
(가운데)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이수정 센터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6월 / 통권 182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모두의 나눔

영원한 초록별을 위해

오늘의 지구를 지킵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프레시스 플라스틱 서울 프로젝트

‘플라스틱 방앗간’

14

내 인생의 한마디

(주)스타테크 박원균 회장

18

착한 열매슬랭

그야말로 다 맛있는 전주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나눔리더로 기부 동참한

세종점자도서관 이준범 관장

24

착한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희망의 징검다리 되다

28

나눔 이슈 ①

차세대 나눔문화 주역, 13인의

신입 직원

30

나눔 이슈 ②

사랑의열매 나눔총서

32

클라우드펀딩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광주·전북·전남·제주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영원한 초록별을 위해 오늘의 지구를 지킵니다

흔히 지구를 '초록별'이라고 말한다. 과연 100년 뒤에도 초록별일 수 있을까? 현재 지구의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 지구온난화로 남극 빙하가 빠르게 녹는다면 수십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투발루는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클이선희 사진각나눔기관
일러스트 조성흥



지역아동센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벽면 녹화 조성 및 친환경 교육 지원 사업 포레스트(FOREST)

브라더스키퍼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부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책걸상 구매 지원, 인테리어 시공 등 내부 구조변경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포레스트는 기존 사업과 달리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공기 유해 물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식물로 벽면 녹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물은 우리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는다고 한다. 이에 벽면 녹화로 실내 녹시율(綠視率)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안정, 자신감 증진,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친환경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등 통합 지원이 이루어진다.



1 벽면 녹화 설치 모습
2 식물이 시들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한다.
3 정서적 안정 효과가 있는 원예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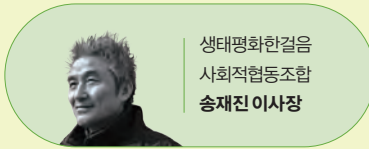
1 세계 개구리의 날을 맞아 개구리 보존 캠페인 진행 2 겨울철 철새를 조사 중인 청소년 3 본격적인 두꺼비 집단 산란지 조사를 나가기 전 진행한 생태 교육

지역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강하구 생태계 보호 활동 한강하구 청소년 생태학교

한강 하구와 그 유역은 생태가 비교적 잘 보존된 곳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개발 압력을 받고 있어 두꺼비 집단 산란지, 반딧불이 서식지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생태평화한걸음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사랑의열매와 (재)숲과나눔의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프로젝트 초록열매 사업에 선정돼 한강하구 청소년 생태학교를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은 생태 조사, 생태 교육, 캠페인으로 나뉜다. 먼저, 생태 조사는 청소년 환경 동아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겨울철 조류, 두꺼비 집단 산란지,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사하고 보호수 보전 활동을 진행한다. 다음 세대 주역인 청소년이 직접 생물 다양성과 생태 자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의 환경과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가족 대상 생태 교육,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까지 한강하구의 생태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Mini Interview



생태평화한걸음 사회적협동조합 송재진 이사장

생태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요?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한강 하구의 생태적 특성과 보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생태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생태학교에서 얻은 정보와 조사 결과를 향후 시민들의 생태 인식 증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선생님들이 먼저 답을 말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대신 청소년들이 도감 없이 스스로 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조사 기록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3회 차에 접어들면 주요 생물종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개발과 생태 보전에 대한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충돌합니다. 인간과 자연 생태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심은 개발 욕구에만 집중되어 있지요. 사랑의열매의 초록열매 사업은 건강한 생태 보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한강하구 청소년 생태학교가 프로그램이 아닌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한강 하구는 북한과 마주하는 것은 물론, 생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해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강 하구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동 주도 친환경 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 인식 증진 프로젝트 I(아이), 주도(주도), 에코빌리지

당진시 14개 지역구 중 대호지면은 인구수가 가장 적은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매우 높아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7월 진행된 대호지면 주민총회에 아동들이 참여해 지역 현안, 특히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를 계기로 새마을지도자대호지면협의회부녀회와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이 함께 해당 사업을 구성했으며,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의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되었다. '아이 주도'라는 이름처럼 대호지면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조금초등학교 전교생 62명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환경 교육과 에코-체험 활동을 하는 'the:알다(교육)', 환경을 주제로 연극·미술 활동을 하는 'the:느끼다(문화 예술)', 초등학생과 지역 주민이 마을 환경을 보호하는 챌린지를 진행하는 'the:나누다(캠페인)'로 나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실천이 일상'이 되는 마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 중이다.



1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조금초등학교, 새마을지도자대호지면협의회부녀회 2 에코-챌린지에 참여해 이달의 환경 실천을 인증하고 친환경 물품 키트를 받은 아이들 3 에코-체험 활동으로 손 소독제를 만드는 아이들



Mini Interview



당진북부사회복지관
함성은 팀장

가장 중점적인 프로그램을 꼽자면 무엇인가요? 개인, 마을, 학교가 참여하는 에코-챌린지입니다. 간식 안 먹기, 텀블러 사용하기, 손수건 가지고 나가기 등 달마다 재미있는 챌린지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달력을 제작해 마을에 배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챌린지에 참여하며 달력에 스스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성공할 경우 저희가 매달 다른 물품

이 든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이들은 물론 주민분들의 참여도도 높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있다면요? 조금초 아이들이 천연생활용품인 손소독제, 알로에수분크림을 제작한 후 환경 메시지를 적어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는 체험 활동을 했을 때였어요. 한 아이가 “제가 백 살이 되어도 대호지면이 깨끗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적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어른들도 지켜달라는 아이의 바람이 잘 드러난 것 같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한 점을 꼽는다면요? 마을 단위 사업이자 아이들이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생 농업에만 종사해온 주민들이 에코-체험 활동 마을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시고요. 이제는 주민들도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사업을 주도하는 모습이 보여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호지면에서는 환경을 지키는 실천이 일상적인 행동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

작은 병뚜껑을 모아 지구를 구한다고요?

프레셔스 플라스틱 서울 프로젝트 ‘플라스틱 방앗간’

2,000명 정원의 플라스틱 수거 참여자 신청은 30초 만에 마감되고, 참여 대기 신청자만 4만 4,000명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는 환경 운동이 있다. 작은 조각을 모아 큰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프레셔스 플라스틱(Precious Plastic) 서울 프로젝트, ‘플라스틱 방앗간’이다. 글강은진 사진김기남, 서울환경연합

식탁에 오르는 플라스틱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21g, 신용카드 한 장 무게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금도 해마다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게 부숴져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오른다. 환경 파괴는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결법은 과연 무엇일까? 최대한 사용을 줄이는 거다. 그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분리배출이 보편화한 우리나라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률은 34%에 불과하다.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깨끗하게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리배출해도 나머지 66%는 매립돼 결국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소각을 통해 미세먼지로 돌아오거나, 바다로 흘러가 다시 식탁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곳이 있다. 바로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방앗간’이다.

재활용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앗간?

플라스틱 방앗간은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가 함께 하는 ‘나눔과꿈’에 선정된 프레셔스 플라스틱 서울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다.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프레셔스 플라스틱은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모아 종류별·색깔별로 분류해 분쇄기로 부순 다음 그 조각을 녹여 가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재활용 기계 도면이나 재활용 물건의 디자인 노하우 등을 오픈 소스 형태로 무료 공유한다. 플라스틱 방앗간 역시 시민들이 모은 병뚜껑을 치약짜개나 비누 받침대, 열쇠

- 1 수집한 병뚜껑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리 세척 과정을 거친다.
- 2 분쇄한 플라스틱 병뚜껑
- 3 분쇄한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치약짜개
- 4 제품 제작 모습



고리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 캠페인 참여자들에게 리워드로 돌려준다. 수거한 플라스틱 병뚜껑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인력,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참여 인원은 시즌별 2,000명으로 제한해 진행했다. 택배 수거로 진행한 참새클럽 시즌 1~3의 결과, 총 1만여 명이 참여하고 대기자만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캠페인은 성공적이었다. 현재는 택배 수거를 마감하고 시민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변경, 전국의 제로 웨이스트 숍과 협업해 수거 활동을 진행 중이다.

결국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것

엄격한 수집 가이드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방앗간은 PP(폴리프로필렌)와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플라스틱 중에서도 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크기의 플라스틱만 수집한다.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일까. 분리배출할 경우 플라스틱, 종이, 유리 같은 재활용 쓰레기는 한데 모아 선별장으로 가는데, 이때 사람이 일일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걸러내다 보니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은 사실상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플라스틱 방앗간은 역설적이게도 재활용을 통해 재활용이 쓰레기 문제 해법은 아님을 전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의 허점, 기업 변화 등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자는 이야기를 잊지 않는다. 쿵덕쿵덕, 지구를 구하기 위해 플라스틱 방앗간은 오늘도 부지런히 플라스틱을 뺏는다. 🍀



병뚜껑은 재활용을 통해 다양한 제품으로 탈바꿈한다.

플라스틱 방앗간의 병뚜껑 수집 가이드

- 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크기의 자체 재질이 PP라고 표기된 플라스틱
- 음료 병뚜껑과 병목 고리(대부분 PP, HDPE로 따로 재질 표시가 없어도 됨)
- 실리콘·고무·비닐 등 다른 재질이 부착된 경우 수집 불가. 병뚜껑 안쪽 확인 필수
- 스티커, 라벨, 음식물 등 이물질이 깨끗하게 세척하고 제거
- 재질이 플라스틱 자체가 아닌 라벨에만 적혀 있는 경우 수집 불가
- PS, PET, PLA, OTHER(복합 재질) 등은 수집 불가
- 바깥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떼어내고, 안쪽에 있는 실리콘이나 종이 등은 분리
- 색깔별로 분리
- 음식물 등이 묻어 세척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경우 수집 불가
- 치약, 화장품, 소스, 어린이 음료 병뚜껑 등 자체 재질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수집 불가



*관련 문의 카카오톡 @서울환경연합 pp@kfem.or.kr ppseoul.com/mill



귀여운 열쇠고리



참새클럽 회원들이 모은 병뚜껑



플라스틱 방앗간에는 다양한 제품이 전시돼 있다.

MINI INTERVIEW

“병뚜껑 수집의 진짜 목적은 문제의식의 각성과 공유”

서울환경연합 프로젝트 매니저 김자연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믿지 않을 만큼 쉽다. 제품 디자인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사실 환경 운동의 성패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에 달렸다고 본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테니까 말이다. 더 자랑하고 싶은 멋진 활동과 세련된 제품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 중이다.

플라스틱 방앗간을 만든 계기가 궁금하다. 플라스틱 쓰레기뿐 아니라 낭비하는 자원 문제는 기후 위기와 직결된다. 이런 환경문제는 ‘나 하나의 실천으로 뭐가 변할까?’ 하는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럴 때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시작했다.

나눔과공 사업 지원을 통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했겠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못 할 정도로 더뒀을 테고 지금처럼 멋진 제품 생산도 어려웠을 거다. 재활용 플라스틱은 탁해서 색을 내는 게 어렵다. 만약 그저 그런 촌스러운 제품이었다면 현재 플라스틱 방앗간 참새클럽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MZ세대 여성분들이 지금처럼 참여했을까 싶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예산 문제다. 우리는 그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다. 서울환경연합이라는 곳도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 환경 단체다. 공모 사업을 통한 지원을 제외하면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병뚜껑을 수집하는 일 말고도 수많은 교육 요청부터 캠페인,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많은 과업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뚜껑 수거에 참여한 시민들의 변화가 궁금하다. 초기에는 택배로 병뚜껑을 수거했다. 박스를 열어보면 병뚜껑이 많을수록 “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편지나 쪽지가 들어 있고 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병뚜껑을 많이 모아 재활용하자는 게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지, 이 쓰레기가 얼마나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 깨닫자는 거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뿐 아니라 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내고자 한다. 병뚜껑 수거는 유의미한 환경 활동이 되고 있다.



지독한 가난 딛고 나눔의 대부(代父)가 되기까지... (주)스타테크 박원균 회장

“어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돈이 없어 고등학교도 가지 못한 아들은 첫 월급으로 엄마 옷부터 샀다. 그 옷을 받아 든 엄마는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려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홀로 남은 아들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노라 굳게 다짐했다. (주)스타테크 박원균 회장이다. 글 강은진 사진 박충렬

여수 나눔 이끄는 입지전적 인물

(주)스타테크 박원균 회장은 여수 지역사회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다. 전남 사랑의열매 93호 아나소사이터 회원임은 물론, ‘재단법인 전남장학회’를 설립해 청소년들을 후원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끝없는 선행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수 YMCA 이사장으로, 청소년 후원 단체 ‘국제와이즈멘 여수진남클럽’ 회원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헌신해왔다. 거기다 열여섯 살 소년공으로 시작해 (주)스타테크 회장까지 오르는, 사업의 성공 신화를 새로 쓴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의 박원균 회장 뒤에는 큰 아픔과 슬픈 고생, 그리고 많은 고비가 숨어 있었다. 일단 그의 이야기는 지독한 가난에서 시작한다.

“고향이 이곳 여수가 아니고 고흥인데요, 정말 가난했어요. 집에 농사지를 땅 한 뼨이 없었으니까요. 시

골에서 농사지을 내 땅이 없다는 건... 남의 집 일도 농사 칠뿐이지, 겨울이면 굶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실 칠판엔 육성회비 못 낸 제 이름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곤 했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2남 1녀 중 막내인 박원균 회장은 유난히 속 깊은 아들이었다. 형의 육성회비를 빌리러 아침부터 남의 집에 가는 엄마가 안쓰러워 단 한 번도 먼저 육성회비를 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 학교 앞에서 파는 과자 한 봉지가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사달라기는커녕 아예 과자를 보지 않으려고 뒷문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교 다닐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상경을 했죠. 무작정 말이에요.(웃음) 그래도 다행히 좋은 분



들을 만나 선박 엔진 공장에 취직하고,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었지요.”

박원균 회장은 돈을 벌어 어머니를 돕고 싶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첫 월급을 손에 쥐었을 때 고향에 보낼 어머니 옷부터 사러 갔다. 하지만 그땐 미처 몰랐다. 그가 산 어머니의 옷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어머니 옷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의 옷까지 사서 고향으로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산 옷은 한 번도 입어보시지 못하고요. 옷은 제가 어머니 관에 넣어드렸습니다.”

애뜻한 막내아들을 서울로 보내고 괴로워하던 어머니는 아들의 소포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큰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 박원균 회장은 어머니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

박원균 회장은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을 나눔의 삶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늘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어머니가 기뻐하실까만을 고민했다. 그 답이 바로 나눔이었다.

“서울 본사에서 일하다가 여수 대리점이 생기면서

— 박원균 회장은 여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명성이 높다.



스무 살 무렵에 내려왔어요. 그때 뭔가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찾아간 곳이 와이즈멘이라는 봉사 클럽이었어요. 기부는 생각지도 못했고, 봉사로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봉사 활동과 직장 일을 병행하던 박원균 회장의 여수 생활도 파란만장했다. 열심히 근무해 공장장까지 승진했지만 회사가 부도났다. 그는 지인의 도움으로 1994년 부도난 회사를 인수하고, 그 이후 2004년 주삼동에 위치한 지금의 공장을 지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부채를 갚은 다음 주식회사로 변경해 직원들에게 주식까지 나누어주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엔 자신이 가진 건 오로지 기술과 신용뿐이었다고 말했다.

나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일찍이 봉사 활동을 시작한 박원균 회장은 사랑의 열매는 물론 아너 소사이어티까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부는 남몰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너 관련 기사나 방송을 보면 돈 자랑하는 줄만 알았다며 웃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너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명예로운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공장을 운영하면서 1억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1억 원을 들고 사랑의열매에 가서야 분할 납부 약정 기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웃음)”

박원균 회장은 자신에게 고등학교 교복을 후원받은 학생들에게서 감사 문자를 받았을 때를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꼽았다.

“제 소원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건데, 아이들은 그저 돈 자랑으로 오해할까 봐... 직접 만나 밥한 끼 먹으면서 제가 살아온 얘기와 함께 그 교복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고 응원했죠. 명함 한 장 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큰 공부가 됐으며 저를 본받겠다고요. 정말 뭉클했습니다.”

박원균 회장은 ‘나눔은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면 나눔 것이 잘 보인다면서 말이다. 오늘도 박원균 회장은 주위를 살핀다. 더 나누기 위해서 말이다. ♣

“모든 순간을 착하게 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명예로운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고,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수상하는 영광으로 이어졌죠. 이만하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님이 기뻐하실까요?”

맛의 본고장에서 만나는 착한가게

그야말로 다 맛있는 전주 맛집

전주의 음식은 예로부터 호사에 가까웠다. 음식에 들이는 정성에서 가짓수까지 유별나다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괜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게 아닐 터. 말해 무엇 하랴, 이제 전주로 향하자.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전국구 빵 성지, 우리밀누룩꽃빵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석소5길 17 ☎ 063-903-3030

☎ 매일 11:00~17:00(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상호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는 100% 우리 통밀을 사용해 빵을 굽는다. 베이킹의 기본인 설탕은 물론 어떤 첨가제도 넣지 않는다. 이스트 대신 막걸리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전통 쌀누룩을 직접

만들어 자연 발효시키는 게 특징! 소화 잘되는 비건 빵으로 유명해지면서 전국의 식도락가는 물론 일반인까지 주문이 쏟아진다. 오후가 되면 웬만한 빵은 거의 동이 난다.

고기의 명가, 풍남문한우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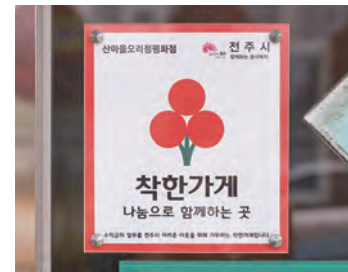
☎ 063-288-6020 ☎ 매일 10:00~22:00

전주 시민에게 좋은 고기로 이름난 곳이다. 일단 풍남문한우촌 박정엽 대표 이력부터 남다르다. 그의 첫 직장이 옛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 도축장으로, 30년 간 고기를 다루온 전문가 중 전문가다. 까다로운 전주 시민에게 괜히 인정받은 게 아니다. 이후에도 '제6회 전북음식문화대전'에서 우승하는 등 남다른 음식의 길을 걸어왔다. 또 착한가게로 기부에 동참하며 시장 표창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서 신뢰도 높다. 가히 명가라 이를 만하다.



토박이가 극찬, 산마을오리정 평화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6길 5-4
063-229-5292 매일 10:00~22:00



전주 토박이들이 찐 맛집으로 인정하는 집이다. 오리 훈제, 오리불고기, 오리 로스 등 오리고기 전문집으로, 푸짐하게 한 상을 즐길 수 있다. 또 전주답게 정갈하게 차려 내는 밑반찬도 예사롭지 않다. 몸보신에 좋다는 오리탕을 기본으로 제공해, 오리 한 마리를 온전히 맛볼 수 있다. 특히 훈제 오리에 쫄면이 곁들여 나오는데, 담음새부터 맛까지 남달라 일부러 찾는 마니아까지 있을 정도다.

전주식 생선 요리, 탐탐생선구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10길 12-3
063-277-8818 매일 11:00~22:00(화요일 휴무)

생선구이가 별다른 게 있을까 싶지만, 양반 밥상으로 유명한 전주라면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 노릇노릇 구운 생선구이를 메인으로 달걀찜은 기본, 맛있는 밑반찬에 구수한 누룽지까지 차려 내는 한 상이라면 말이다. 거기다 전주식 양념을 넣은 양념고등어구이, 갈치조림, 굴비매운탕은 특별할 수밖에. 전주 시민들조차 가성비 좋은 맛집이라 말할 정도다.



나눔리더로 기부 동참한
세종점자도서관 이준범 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멋지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도움을 받아보았기에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한다.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100호의
주인공, 세종점자도서관
이준범 관장이다.

글 강은진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세종점자도서관



2021년 11월 개관한 세종점자도서관. 지역 시각장애인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기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거 하나 했으면 됐지 하는 생각을 멀리
하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이어가고 싶
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나눔, 당연한 일상 돼야

이준범 관장은 많은 장애인이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움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고마움을 잘 알거든요. 장애인이라고
도움만 받고 살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이준범 관장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얼
마나 멋진지,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은 없을 거라며 웃는다. 그런 이준범 관
장이 생각하는 나눔은 당연한 일상이
다.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이든 1,000원짜리 지폐
든 액수 상관없이 십시일반으로 함께하
는 마음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준범 관
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웃들의 꾸준

“도움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고마움을 잘 알거든요.
나눔이 당연한 일상이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 세종점자도서관 이준범 관장

세종 100호 나눔리더 탄생

세종 사랑의열매 100호 나눔리더가 탄
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세종점자도서
관 이준범 관장이다. 지난 4월 1일 가입
식을 한 이준범 관장은 그저 작은 기부
에 동참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배분 기관인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받는 데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다
세종점자도서관 관장에 취임하면서 생
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제야 철이 드

는 건지(웃음) 늘 도움을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눔리더
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이준범
관장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 기간 동
안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는 따뜻한 사연을 많
이 접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또 단체
장에 취임하기까지 자신이 받은 많은 도
움도 새삼 떠올랐다.

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준범 관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
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실명했으며, 대학
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이후 세종
시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지
난해 11월 개관한 세종점자도서관 초대
관장으로 취임해 시각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세종점자도서관 이준범 관장(오른쪽 두 번째)에게 점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사진은 나눔리더 가입식 모습



— 2022년 좋은데이 희망장학생 장학금 전달식. 좋은데이나눔재단의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으로 장학금 때부터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후원하는 장기 장학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희망의 징검다리 되다

'좋은데이'는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하는 소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랑과 신뢰의 바탕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가 자리한다. 글강보라 사진 좋은데이나눔재단

무학그룹은 동남권 대표 종합 주류 기업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좋은데이'는 무학그룹의 대표 브랜드로 경상도 사투리 '졸다'와 영어 '굿 데이(good day)'를 중의적으로 풀어낸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남에서 오는 긍정적 상황을 소주에 담아내며 대중화에 성공한 브랜드가 됐다. 무학그룹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맞춤형 지원 사회 공헌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창업자 최위승 명예회장이 1985년 경남 지역 최초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 공헌 활동의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갔다. 이후 무학그룹이 100% 출자한 공익법인 '좋은데이나눔재단'을 설립한 뒤 기존 장학재단을 확대·개편하며 새롭게 출발했다. 이로써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는 사회, 더불어 희망을 나누는 사회를 위해 맞춤형 교육 지원, 실질적 나눔 실천, 임직원들의 참여형 자원봉사 활동 등 공익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나눔으로 일군 향토 기업 무학의 100년 정신

혁신과 변화로 주류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무학그룹이 나눔으로 새로운 도약을 했다.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에서 나눔명문기업으로 출발을 선포한 것이다. 무학그룹 최재호 회장은 "희망2020나눔캠페인의 좋은 취지

에 동참했는데, 나눔명문기업에 등재돼 더욱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민이 함께 참여해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무학그룹은 기부금 전달 외에 임직원과 좋은데이청년봉사단이 직접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나눔명문기업으로 선대의 나눔 정신을 이어간 무학그룹은 경남 지역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남 사랑의열매 홍보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사랑의열매와 홍보 MOU를 체결하고, 주류 라벨에 기부하기 딱!좋은데이, 나누기 딱!좋은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기부 문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다. 이후 사랑의열매와 좋은데이의 특별 기부 판 소주 100만 병을 생산하며 나눔문화의 싹을 틔웠다. 이번 MOU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침체된 기부 문화를 확산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도민의 기부 동참을 독려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 꿈나무를 키우는 좋은데이 희망장학생

좋은데이나눔재단의 대표적 사회 공헌 사업은 인재 육성 프로젝트인 '좋은데이 희망장학생'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어려운 가정의 중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 졸업 때까지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생 한 명당 매달 50만 원씩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도움을



— 좋은데이와 사랑의열매의 콜라보. 좋은데이 주류 라벨에 사랑의열매 기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주는 장기 장학 프로그램으로 매월 1회 멘토 간담회와 문화여가 활동, 연 1회 장학생 초청 간담회로 학생들을 격려한다. 단순한 일회성 장학금 지급이 아닌, 지속적인 후원으로 학생 스스로 꿈을 실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데이 희망장학생 프로그램의 핵심 취지다. 희망장학생은 해당 지역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2011년 25명으로 시작했다. 부산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희망장학생 A 양은 “중학

—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여해 사랑의온도담 제작식의 시작을 알렸다.



교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지원해 꿈을 이루게 도와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무학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주변 사람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첫 선발 당시 중학생이던 희망장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에 진학하며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무학그룹이 뿌린 나눔의 씨앗이 어느새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해 희망의 숲을 이룬 것이다.

—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뽑혔다.



— 좋은데이자원봉사단과 함께 하는 연탄 나눔 활동 모습

겨울 추위를 이겨낸 사랑의 온기

좋은데이나눔재단은 매년 겨울, 연탄과 김치 나눔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와 더불어 '좋은데이나눔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좋은데이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울산 지역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총 1,840kg 상당의 배추김치를 담가 가구당 8kg씩, 230 가구를 직접 방문해 따뜻한 응원과 함께 전달했다. 좋은데이나눔재단 최재호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김장은 겨우내 먹거리를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며, 이웃과 정(情)을 나누는 따뜻한 의미가 있다”며 “무학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정성껏 만든 김치를 통해 소외된 이웃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역 이웃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노력은 연탄 나눔으로도 이어졌다. '좋은데이나눔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부산 서구 아미동에서 진행했는데, 무학그룹 임직원으로 이뤄진 좋은데이자원봉사단 20여 명이 5,000장의 연탄 배달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봉사 인원이 줄어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좋은데이봉사단을 긴급 투입한 것이다. 이날 봉사단이 전달한 연탄 중 1,000장은 일부 가정에 배달했고, 나머지 4,000장은 부산연탄은행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처럼 온정을 품은 봉사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연료가 되어주었다.

우리 지역 히어로, 좋은데이자원봉사단

무학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 뒤에는 언제나 좋은데이자원봉사단이 있다. 무학그룹 임직원으로 이뤄진 좋은데이자원봉사단은 '지역 사랑 고객 사랑'을 슬로건으로 2007년 창단한 사내 봉사단이다. 다양한 사회 공헌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지역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에도 참여하는데, 도배지 풀 먹이기부터 기존 벽지를 뜯어내고 새로운 도배장판으로 교



— 매년 김장 나눔은 물론 떡국, 팔죽 나눔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체하는 데도 일손을 보탠다. 여름철 소외 계층의 실내 폭염을 예방하는 '쿨루프(Cool Roof)' 지원 사업에도 열심이다.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반사 및 태양열 차단 효과가 있는 흰색 차열 페인트를 직접 시공하며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좋은데이자원봉사단의 농촌 일손 돕기는 위기 순간에 더욱 빛난다. 코로나19로 농가의 일손이 더욱 부족해지자 농가 돕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병충해로 상품 출하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가 수확 일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확한 농산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까지 이어가는 원스톱 봉사 활동을 펼쳤다. 겨울에는 주남저수지를 찾아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재두루미를 비롯한 철새에게 범씨 2,000kg을 공급하는 등 올해로 10년째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사회, 다양한 친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이 내세우는 '지역 사랑 고객 사랑'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철저한 실천이다. 이런 실천 덕에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의 나눔 실천이 지역 주민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바란다. 🍀



5일간 합숙 교육을 받은 신입 직원 13인

차세대 나눔문화 주역, 13인의 신입 직원

사랑의열매의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지난 3월 사랑의열매 2022 신입 직원 공개 채용이 진행됐다. 2년 만에 재개한 만큼 지원자들의 관심이 대단했다는 후문이다. 여러 관문을 거쳐 드디어 합류한 13인의 신입 직원이 사랑의열매의 일원이자 차세대 나눔문화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글 | 선희 사진 | 사랑의열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우리 일상이 조금씩 회복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덕분에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신입직원 합숙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중앙회, 경기, 전북, 제주 등 전국 사랑의열매에 총 13명의 신입 직원이 5월 1일 자로 입사했다. 본격적 업무에 돌입하기에 앞서 이들이 앞으로 사랑의열매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유진인재개발원에서 합숙 교육을 진행했다. 5일 동안 사랑의열매 역사, 배분 사업, 회계와 정보 보안 등 전반적 업무를 교육받았다. 마지막 날에는 '선배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모금과 배분, 홍보 등 각 직무를 맡은 선배들이 경험담을 바탕으로 사랑의열매 적응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입사 초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팀원과 잊지 못할 추억, 주변 맛집 공유 등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 13명의 새싹이 앞으로 어떻게 '사랑의열매'를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랑의열매 신입 직원 4인이 전하는 당찬 나눔 출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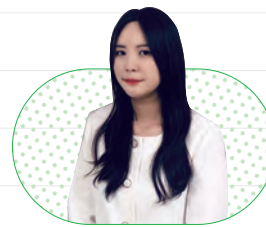


경기 사랑의열매 전문재

공개 채용의 여러 과정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개무량합니다. 합숙 교육을 통해 사랑의열매가 기부를 받고 배분하는 것을 넘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선배 직원들을 보며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모금액 1조 원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며, 우리 사회에 '나눔은 당연히 사랑의열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열매 중앙회 류경선

사랑의열매로 출근한 지 벌써 일주일이지났는데도 아직 꿈같은 기분이 듭니다. 입사 전에는 막연히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합숙 교육을 받으며 우리나라 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는 체계적이고 세련된 조직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선배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부심과 책임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랑의열매 일원이 된 만큼 앞으로 세상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경기 사랑의열매(북부) 서유정

사랑의열매와 관련 있는 다양한 활동을 했을 정도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 바로 그 사랑의열매에 입사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 이번 합숙 교육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사랑의열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업을 직접 기획·진행하며 나눔을 알리는 등 사랑의열매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주 사랑의열매 고유경

지원서를 낸 게 엊그제 같은데 제주 사랑의열매에서 업무를 배우니 입사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이번 합숙 교육을 받으며 민간 대표 모금 기관으로서 역할 외에도 나눔 플랫폼을 제공하고, 국내의 나눔문화를 연구하는 등 사랑의열매의 역할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지역 내 이웃들의 고민과 짐을 덜어주고, '서로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섬'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제주 사랑의열매에서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



때론 재미있게, 때론 깊이 있게 읽는 나눔

사랑의열매 나눔총서

지난해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의열매 나눔총서'를 기획해 두 권을 선보였다. 나눔문화와 관련한 양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당초 목표에 따라 올해에도 두 권의 책을 발간했다.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은 5·6권에 이어 이번 7·8권도 그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참고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는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나눔 관련 분야의 양서가 부족한 것은 물론, 대학·대학원 학생이나 전문 실무자가 볼 수 있는 국내 번역서 또한 마땅치 않은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물론 이 같은 총서 발간은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지속되지 못했고, 절판되어 현재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나눔문화연구소는 과거의 총서도 대 위에 완전히 새로운 기획을 했다. 매년 두 권씩 총서를 발간하되 그중 한 권은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필란트로피의 새로운 변화나 현황을 담은 대중서 콘셉트로, 다른 한 권은 깊이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한 학술서로 나누었다. 지난해에는 대중서로 차세대 고객 기부자를 이해하기 위한 <임팩트 세대>를, 학술서로 <민주사회의 필란트로피>를 선보이며 각각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



사랑의열매 나눔총서 발간 현황

사랑의열매 나눔총서는 지금까지 총 여덟 권을 발간했다. 이 중 1~4권은 절판되어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대신 2021년부터 새롭게 기획한 5~8권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형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순번	도서명	저자	발행일	출판사
1	비영리 조직의 역량 강화 보고서	플라이트 (박시중 옮김)	2008. 7	나남
2	착한기업을 넘어: 선진 기업들의 전략적 사회 공헌	서진석	2010.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기업 사회 공헌 활동의 동향과 전략	박경수, 박을중, 이용표, 제훈호, 강대선, 강주현	2010.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일곱 빛깔 나눔	황경식, 전성민, 김원열, 김도공, 김경동, 황상민, 강철희, 박태규, 김동일	2012.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임팩트 세대: 차세대 기부자들의 기부 혁명	샤나 골드세커, 마이클 무디	2021. 8	교유서가
6	민주사회의 필란트로피: 필란트로피의 역사, 제도, 가치에 대하여	롭 라이히 외	2021. 8	교유서가
7	기부의 윤리학	폴 우드러프 외	2022. 3	교유서가
8	유럽의 필란트로피,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크리스토퍼 카니	2022. 3	교유서가

사랑의열매 나눔총서 7

기부의 윤리학



폴 우드러프, 엘리자베스 애슈퍼드, 브랜던 보쉬, 토머스 E. 힐 주니어, 윌리엄 매캐스킬, 제프 맥머한, 안드레아스 모겐센, 토비 오드, 크리스틴 스완턴 저음 | 강선정 옮김 | 양옥경 감수 | 교유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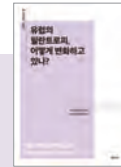
기부나 모금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윤리적 문제를 철학자들의 다양한 사상을 토대로 탐구한다. 기존의 효율적 이타주의와 결과주의·공리주의자의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칸트, 직관주의, 가치 이론, 정직, 정의 등 다양한 철학적 기반 위에서 기부에 관한 윤리학 이론을 검증해보고자 시도한 점에 의의가 있다. 총 일곱 장으로 구성된 글에서 저자들은 기부에 대한 가장 핵심적 질문, 즉 '기부는 왜 해야 하며, 어디에 해야 하고, 얼마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얼핏 철학서처럼 보이지만, 기부 윤리학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저자들의 생각을 정리한 철학 에세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의 추천 한마디

“철학과 윤리학을 토대로 기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맛보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보길 권합니다.”

사랑의열매 나눔총서 8

유럽의 필란트로피,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크리스토퍼 카니 저음 | 박선령 옮김 | 홍경준 감수 | 교유서가

'필란트로피(자선 활동)' 하면 미국을 떠올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련 현황과 지식은 대부분 미국을 기반으로 한다. 민간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미국의 사례는 매우 독특하지만, 분명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온 유럽의 필란트로피는 어떨까? 이 책은 현재 유럽이 직면한 정치적 혼란, 이주민 등 새로운 물결 속에서 필란트로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방면의 증거와 함께 그 과정을 소개한다. 개입과 자유, 정부와 시장, 유럽 모델과 미국 모델의 이분법적 시각에만 치우쳐 그동안 유럽 필란트로피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웠다. 필란트로피 분야 모금 담당 전문가로 활약한 저자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유럽과 필란트로피 모두 변화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의 추천 한마디

“유럽에서 일어나는 필란트로피의 새로운 변화를 더 쉽게 이해하고, 우리의 시선이 지리적으로 더욱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가족의 보호자가 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을 지원하는 펀딩을 시작했다.

클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어른의 따뜻한 응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모금 기간 2022년 6월 1일~8월 31일

목표 금액 500만 원

모금 사용 마음 돌봄 키트 제공, 교육비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캠페인 클라우드펀딩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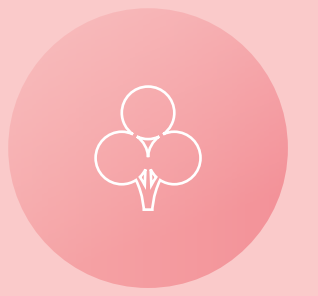
“너무 일찍 가장이 된 아이를 아시나요?”

질병이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부모, 형제 등을 돌보며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청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 그들이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가족돌봄청년의 마음을 돌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작지만 큰 힘이 되고자 합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경제적 지원까지 합니다. 몸과 마음마저 지친 가족돌봄청년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

6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인천
경기
경기북부
강원
서울





10년 넘게 '착한가게' 운영 중인 감탄떡볶이 만수시장점 박상희 대표

“기부에도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천 만수시장 길목에는 나눔의 고수로 불리는 감탄떡볶이가 있다. 착한가게로 등록된 이곳은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

글강보라 사진김기남

떡볶이는 나의 힘!

박상희 대표는 한자리에서만 14년째 떡볶이를 만들고 있다. 초등생이던 단골이 군인이 되어 들르기도 하고, 여고생이던 학생이 자신의 아이와 함께 찾아올 정도로 긴 세월이다. 박상희 대표의 행적은 인터넷에 올라온 700개 넘는 후기가 증명한다. 타 지점의 후기가 100~300개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 수치다. 고객은 '맛, 친절, 위생'의 삼박자를 칭찬하며 박상희 대표의 번창을 기원했다. 이처럼 감탄떡볶이 만수시장점이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나눔이다.

박상희 대표는 오랫동안 남동구의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 아동 학교, 청소년센터에 떡볶이와 피자·치킨·과자 등 간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을 펼쳐왔다. 코로나19로 단체 활동이 중단되자 개인 봉사 활동을 늘려왔다.

“정기 기부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마주 하는 현장 봉사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

—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로 음식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박상희 대표. “맛있다”는 한마디면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말한다.



어요. 특히 간식 이벤트는 자기를 사랑하고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느끼게 해주거든요.”

박상희 대표는 나눔을 위해 준비한 60인분의 떡볶이를 첫째 서하(9), 둘째 서희(7)와 나눠 들고 걸은 그 길을 인생의 지침으로 마음 깊이 새겼다.

기부로 인생의 날개를 달자

“동네 부녀회장님이 코로나19 특별 성금을 내고 오시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

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기부 생활을 돌아보고 현장 봉사를 늘리는 계기가 되었죠.”

과자 10박스를 들고 장애 아동 학교를 직접 방문한 날, “4년 만에 이런 방문은 처음”이라는 선생님의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됐다.

“누군가 하고 있겠지” 하며 미뤘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 일을 계기로 내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떡볶이집을 운영하며 세 딸 서하, 서희, 서현이를 키우면서도 봉사를 멈추지 않는 것은 작은 나눔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옷을 안 사요.(웃음) 일하기에 편하면 그만이니깐요. 제 옷이랑 아들 옷값에서 아낀 돈으로 기부하고 있어요.”

“옷이 날개”라는 말은 박상희 대표에게는 통하지 않는 공식이다. 앞치마가 가장 편하다는 그녀는 그렇게 아낀 옷값으로 기부를 이어가며 다른 이들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



— 서하, 서희 양은 “누군가를 돕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며 엄마의 떡볶이 나눔 봉사에 두 팔을 걷어부친다.

경기 사랑의열매와 사회 공헌 기부 협약 체결한 (주)현대의료기

“도내 이웃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도내 이웃들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주)현대의료기가 나섰다. 10년간 총 50억 상당의 온열휴침대 및 의료 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글강은진 사진경기 사랑의열매

도내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해 의료기기 지원 나선 (주)현대의료기. 사진은 업무협약식을 마친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 내 소외 계층 의료기기 지원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 이웃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주)현대의료기 이동학 대표이사



협약서에 사인한 (주)현대의료기 이동학 대표이사과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오른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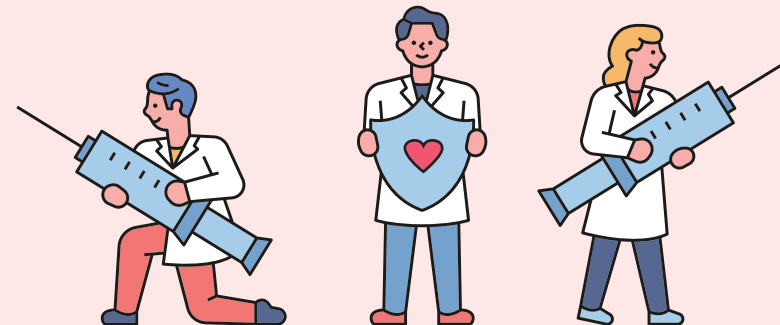
50억 상당 의료 기기 지원 나서

지난 4월 19일 경기 사랑의열매 회의실에서 경기 사랑의열매와 (주)현대의료기의 사회 공헌 업무 협약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주)현대의료기 이동학 대표이사와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현대의료기는 협약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총 50억 원 상당의 온열휴침대와 의료 기기를 기부하고, 경기 사랑의열매는 기탁받은 물품을 도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에

투명하게 배분한다. 여기에 (주)현대의료기는 사회 공헌 사업 관련 기부 물품의 탁송 및 설치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을 마친 (주)현대의료기 이동학 대표이사는 “기부 협약을 통해 전달하는 물품으로 우리 이웃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휴침대 기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와

(주)현대의료기는 이번 협약 이전부터 이천시·광주시 등 도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치며, 지역 사회 나눔에 앞장서왔다. 그뿐 아니라 (주)현대의료기는 지난 2021년 12월, 사랑의열매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통해 이천시 이웃들에게도 5억 3,000만 원 상당의 휴침대 220대를 기탁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이동학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이웃을 염려해 자사 의료 기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부 물품의 무료 설치는 물론 평생 무상 AS까지 지원했다. (주)현대의료기의 이번 협약은 도내 취약 계층 이웃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1999년 설립한 (주)현대의료기는 전국 34곳에 대형 직영 매장을 보유한 온열매트, 온열돌침대 및 휴침대 등 의료기 제조업체다. 3,000평 규모의 자체 공장은 최첨단 기계 제조를 통해 국내 최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제작·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화상 환자 돌봄 가족 위한 커뮤니티 조성 사업 성과 보고회

“환자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3년여간 진행해온 화상 환자 돌봄 가족 커뮤니티 조성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글 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보다 견고해진 돌봄 체계

지난 4월 27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제이드가든에서 ‘화상 환자 돌봄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커뮤니티 조성 사업’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화상 환자 돌봄 가족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돌봄제공 가족을 지원하는 전국

기획사업으로, 2019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757명의 화상 환자 돌봄 가족을 지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틈새 돌봄 제공(간병인, 기사도우미, 외래 이동 보조 등) • 화상 환자 간병 가족 휴식 프로그램 실시 • 화상 환자 전문 돌봄 인력 ‘화상코디네이터’ 양성 • 화상 환자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화된 의료 협진 체계 개발 등이다. 특히 화상코디네이터는 국내 최초로 배출한 사회적 돌봄 전문가로, 현재 9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한 환자 보호자는 “화상 환자의 경우 복합적인 내·외과적 질환과 더불어 외모 변화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돌봄 부담이 아주 높다”면서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은 “화상 환자 돌봄 체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본 사업이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화상 환자 돌봄 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커뮤니티 조성 사업 성과 보고회 기념사진



고양시 최초 나눔리더스클럽 가입한 독서 동호회 ‘하리’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바라요!”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독서 동호회 회원들이 나섰다. 이들을 이끈 건 ‘열여덟 어른’이란 단어였다.

글 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 하리의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식 기념사진. (오른쪽부터) 토스뱅크 박용진 코어뱅킹디벨로퍼, 이자영 회계사, 한빛수학 이한빛 원장, 씨드플로어커피 정정희 대표, 경기 북부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

열여덟 어른, 그들을 위해

지난 5월 16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대회의실에서 독서 동호회 하리의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동호회 하리의 정정희 대표와 회원들, 그리고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2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하리는 2019년부터 시작한 독서 모임으로, 정기적 봉사 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앞으로 3년간 1,000만 원을 기부 약속한 하리는 고양시 최초로 나눔리더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정정희 대표는 “우연히 ‘열여덟 어른’이라는 단어를 접한 후 시설 퇴소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제도권 밖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들 모두의 마음을 모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은 “하리의 소중한 나눔이 마중물이 되어 고양시 곳곳에 나눔리더스클럽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눔리더스클럽은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 문화를 이끄러가는 다양한 분야의 모임과 단체’로 3년 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할 경우 가입 가능한 기부 프로그램이다. ❀

강원 사랑의열매와 인제군사회복지관이 함께하는
동네방네 이음 프로젝트

우리 동네 거점 복지관 '선한동지'

'선한동지' 1호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인제군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 시작된 것. 강원 사랑의열매의 동네방네 이음 프로젝트를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강원 사랑의열매

— 일회용품 사용 자제, 친환경 물품
사용 권유 등 제로 웨이스트
운동으로 진행한 리본데이 행사



1 어버이날 행사 모습
2 지역 주민을 위한 월데이
클래스 3 서화면 아동
가정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

복지관 지리적 접근성 강화 절실해

강원 사랑의열매가 인제군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동네방네 이음 프로젝트 '선한동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제군의 취약한 복지 서비스 문제와 복지관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강원 사랑의열매가 추진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중장기 제안 기획 사업'에 선정됐다. 인제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흥천군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지만 인구밀도가 가장 낮다. 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어르신 수가 20.6%로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실질적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 가구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절실함에도 거점 복지관은 단 하나에 불과해 신속한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인제군 서화면에 우리 동네 거점 복지관 선한동지 1호점을 개설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동네 복지사랑방, 선한동지

지난해 9월 개관한 선한동지 1호점은 인제군 서화면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 사각

지대 취약 가정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며 지역사회를 보호한다. 또 서화면 군인 아빠들을 위한 홈트레이닝 및 식단 관리 사업, 아동가정과 유관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행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 등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육아용품부터 생활용품, 캠핑용품에 각종 계절용품까지 대여해주는 공유센터도 운영 중이다. 자발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을 활동가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렇듯 선한동지 1호점은 서화면의 거점 동네 복지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인제군의 복지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되도록 더 많은 선한동지를 기다려본다. 🍀



봉사부터 취미까지

교류 활발한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나눔을 매개로 만나는 사람들. 회원 간 활발한 교류로 유명한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다.

글강은진 사진 서울사랑의열매



1 아차산 둘레길을 찾은 스포츠 분과 등산 모임 회원들

2 배식 봉사 중인 봉사 분과 회원들



클럽 활성화 모범돼

지난 5월 11일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등산회 정기 모임이 있었다. 회원들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아차산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친목을 다졌다. 그런가 하면 하루 전인 1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광야홀리스센터에서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봉사 분과 회원들의 정기 봉사 모임도 있었다. 회원들은 쪽방 주민에게 무료 급식 배식 활동을 하며 이웃들과 직접 만나는 등 다양한 나눔의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다른 지역과 달리 클럽 활동이 활성화돼 있기로 유명하다. 봉사, 스포츠, 영아너, 여성 등 모두 4개 분과로 운영하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투자 기금 발족으로 큰 화제를 모은 '청청모 청년투자기금'도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영아너 분과 소모임에서 처음 시작했다. 스포츠 분과는 골프회와 등산회가 있는데,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눔을 제안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처럼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활발한 회원 간 교류를 통해 또 다른 나눔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

홈앤쇼핑, 취약 계층 여성의 자립을 위해 1억 원 지원

“취업의 꿈을 응원합니다!”

급식조리사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 계층 여성을 위해 홈앤쇼핑이 나섰다. 교육과정 신설은 물론, 심리 상담까지 섬세하게 지원한다.

글강은진 사진 서울사랑의열매

급식조리사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지난 5월 11일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 사랑의열매 별관 2층에서 취약 계층 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한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의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홈앤쇼핑 이원섭 경영부부장,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홈앤쇼핑은 다문화, 북한이탈여성, 미혼모 등 취약 계층 여성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지원했다.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 따르면 취업 취약 계층 여성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한식·급식·분식 같은 조리사나 주방 보조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홈앤쇼핑과 서울 사랑의열매는 급식조리사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은 물론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 연계를 통한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도 병행하는데, 모든 과정은 전액 무료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홈앤쇼핑 이원섭 경영부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 계층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을 고려해 기획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양성 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이 배출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복을 위한 심리 상담도 병행하는데, 모든 과정은 전액 무료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홈앤쇼핑 이원섭 경영부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 계층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을 고려해 기획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양성 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이 배출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 중인 이원섭 홈앤쇼핑 경영부부장(오른쪽)과 신혜영 서울사랑의열매 사무처장(왼쪽)



6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울산
경북
경남
부산
대구





— 지난 4월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111호 회원이 된 조희숙 대표이사

울산 아너 111호로 가입한 (주)코리아에어터보 조희숙 대표이사

그리운 어머니께 바치는 '나눔' 사모곡

울산에서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손꼽히는 조희숙 대표이사, 그가 지난 4월 울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 조 대표는 아너 회원 번호 111호를 부여받기 위해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고 한다. '111'이 유독 그에게 특별한 이유는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이 깊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울산 사랑의열매

언제나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

(주)코리아에어터보 조희숙 대표는 어머니故 허남이 여사와 자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각별한 모녀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드나드는 사람도, 일도 많은 종갓집에 여자라곤 조희숙 대표와 어머니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으레 어머니 곁에 앉아 일손을 도우며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애뜻한 모녀였다.

“어머니 생신이 1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생신을 오래 기억하고자 111호만큼은 꼭 제가 하고 싶었어요. 울산 사랑의열매에 아너 111호는 내가 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점해두었죠.(웃음)” 조 대표는 산업용 컴프레서(공기압축기) 제조 및 부품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등 부품 국산화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공한 기업인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지역 산업 진흥 유공자’로 선정돼 정부 산업포장을 받기도 했다. 조 대표가 처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린 건 아니다. 19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덜컥 사업체를 물려받았다. 밤낮없이 일만 하던 그때 또 한 번의 불행이 그를 덮쳤다. 하루아침에 어머니마저 그의 곁을 떠나버렸다.

“어머니께서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 하고 가셨어요. 아쉬울 따름이죠.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좋은 음식과 옷 등 제가 가진 것 중 최고만을 드렸을 텐데... 떠나시기 전까지 제 걱정만 하셨을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자식에게 존경받는 엄마, 그걸로 충분

조희숙 대표는 사실 아너 가입을 앞두고 주변에서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염려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총회에서 아너 가입식을 한 후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제가 아는 대표님들이 아너 총회에 계시는 거예요. 반가운 한편, 이렇게 많은 분이 아너라니 놀랍기도 했지요. 따뜻하게 반겨주는 아너들과 사랑의열매 직원들 덕분에 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으면 진작 가입할 걸 왜 지금에야 했는지 하고요.(웃음)” 조 대표는 이제 적극적으로 아너 소사이어티를 알리겠다고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물론 아너 총회의 영향도 있지만, 자녀들의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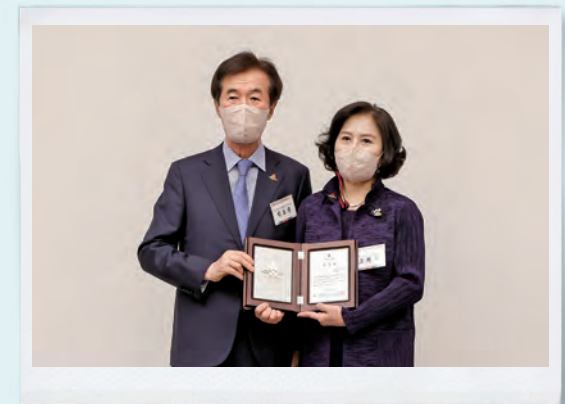
가 그에게 엄청난 자부심이 되었다. 특히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딸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딸이 ‘훌륭한 일을 했다’며 ‘엄마를 존경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에겐 모든 세상 사람의 칭찬보다 더 귀한 말이에요. (아너 가입한 모습을 보고) 아마도 어머니 역시 저를 토닥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잘했다고, 장하다고 말이죠.”

111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회에서 행운, 기회, 유일 등 어떤 의미도 부여받지 못한 세 자릿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조희숙 대표가 울산 아너 111호가 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머니’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조희숙 대표가 울산 아너 111호라서 참 다행이다. ❀

“고생 없이 얻는 건 없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듯 나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코리아에어터보 조희숙 대표이사



기부자의 뜻을 높이 기리고, 나눔 선순환까지

23개 시군에 설치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홍보존

누군가는 작은 것 하나 손에서 빠져나갈세라 더욱 움켜쥐는 이가 많은 각박한 세상이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액을 아낌없이 내놓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다. 경북 사랑의열매에서는 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경북 곳곳에 아너 소사이어티 홍보존을 설치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경북 1호 아너 회원이 있는 경주시에 가장 먼저 아너 홍보존을 설치했다. 경북에서 가장 많은 아너 회원이 있는 도시답게 제막식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해 화제가 되었다.



지역의 자부심이 된 아너 회원

경북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7월부터 경북도청 및 23개 시군 청사 등에 아너 소사이어티 홍보존(이하 아너 홍보존)을 제작·설치하기 시작했다. 도내 아너 회원 142명의 고귀한 기부 정신을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2021년 8월 경북 최초로 아너 홍보존을 선보인 경주시를 시작으로 경산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의성군 청사에 차례로 설치했다. 각 홍보존에는 해당 시군별 아너 회원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나눔 메시지를 새긴 현판을 설치해 아너 소사이어티 고액 기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각 시군만의 특색을 살려 저마다 남다른 의미를 지닌 홍보존 디자인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곳곳에 선한 영향력 전파

아너 홍보존 제작·설치를 마치면 제막식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행사는 기존



의성군청에 설치한 아너 홍보존 모습

회원 간의 친분을 돈독히 하는 교류의 장이 되는 한편, 아너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실제로 제막식에 참석한 한 아너 회원은 “나눔 실천을 통해 오히려 제가 ‘마음의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아너 홍보존에 이름이 올라온 것을 보니 영광스럽다”며 “더 많은 분이 홍보존에 이름을 올리도록 나눔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제막식 행사에는 신

규 회원의 가입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회원들끼리 소통하는 모습과 아너 홍보존을 보며 실제로 지역민이 아너에 가입하는 사례도 제법 있다는 후문이다. 23개 시군 중 여섯 곳에 설치했으며 현재 여러 지자체와 홍보존 설치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북 사랑의열매는 아너 홍보존이 지역 내 나눔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1 안동시의 시목인 소나무를 이용해 만든 홍보존 모습. 소나무의 위엄 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느껴진다. 2 1층과 2층 계단 공간을 활용해 제작한 경산시 아너 홍보존. 은은한 간접등을 부착해 주목도를 높였다.

임직원의 생활 속 실천으로 ESG 경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푸르른 사회 공헌 활동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경남 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수년간 이어오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폭넓은 활동으로 눈길을 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임직원의 빛나는 나눔 실천이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경남 사랑의열매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1



2

1 LH 임직원 가족봉사단과 함께한 냥천늪 습지 생태 활동
2 임직원이 만든 나무 약상자에 필요한 의약품을 담아 저소득 가정에 전달한 '우리집 안심 약상자'

계단 이용 적립금으로 탄소 상쇄 숲 조성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LH가 나섰다. 지난 4월 26일 창원군 길곡수변공원에서 나무 심기 봉사 활동인 '에코 스텝 고(ESG, Eco Step Go)'를 실시해 수국나무 1,800그루를 심었다. 행사는 LH 김현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 창원군 김무진 부군수, 경남자원봉사센터 전지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식재한 나무는 모두 에코 스텝 고 사업을 통해 마련했다. LH 임직원이 사옥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층당 10원씩 적립한 금액을 나무 심기에 활용한 것. 이렇게 지난 2년간 총 600만 층을 걸어 6,000만 원을 마련했다. 해당 적립금은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창원군에 전달해 수국나무 2,850그루와 영산홍 1,500그루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총 4,350그루 중 길곡수변공원에 1,800그루를 심고, 남은 2,550그루는 창원군 14개 읍·면에 식재해 탄소 상쇄 숲을 조성했다. LH는 에코 스텝 고 사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2,000그루 이상, 오는 2050년까지 전국에 나무 5만 그루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H는 2027년까지 온실가스 53만 톤 감축을 위해 임직원이 실천하는 나무 심기 사회 공헌 사업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ESG 경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

발로 뛰며 지역과 소통하는 나눔

LH는 총무고객처 중심의 사회 공헌 사업 외에도 부처별로 다양한 지역 맞춤형 활동을 펼치고 있다. LH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경남 18개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함께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설명절을 맞아 경남 내 홀로 사는 어르신께 쇠고기·곰국 등 신선한 재료로 구성된 설 나눔 키트를 전달하는가 하면, 낙후한 지역에 태양광 벽등 설치와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안전하고 밝은 마을을 만드는 데도 힘쓰고 있다. DIY 공기청정기, DIY 약상자를 직접 제작해 장애인, 다문화 가정,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아동 가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까지 한다. 앞으로도 LH는 공기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소통하며 더욱 따뜻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창녕군 곳곳에 4,350그루를 식재해 탄소 상쇄 숲을 조성했다.



가정의 달 맞아대를 이어나눔 실천

연이어 탄생한 따뜻한 나눔명문家

아버지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 등이 있어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한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게 존중과 사랑을 베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욱이 가족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사랑을 베푸는 가족이 있다. 부산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나눔명문가라 할 수 있다.

글이선희 사진부산사랑의열매

부모에 이어

아들·며느리도 부부 아너

지난 5월 6일 (주)제이에이치라이팅 정주현 대표이사과 액트로닉스 이수진 실장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부산 사랑의열매의 스물일곱 번째 아너 부부 회원이 되었다. 특히 이들은 부산 아너 클럽 정성우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임이 밝혀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주)지맥스 대표이사 정성우 회장과 그의 부인 박경희 씨가 각각 2012년과 2016년 아너에 가입해 부산의 일곱 번째 부부 아너로 이름을 올린 나눔 선배이기 때문. 이번에 아들 부부가 그들의 뒤를 이어 아너에 가입하며 2대(代) 부부 아너 회원이라는 기념비적 기록을 남겼다. 부산 사랑의열매 사무실에서 개최한 정주현 대표이사과 이수진 실장의 아너 가입식에는 딸 정서원 양은 물론 정성우 회장과 박경희 씨까지 온 가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웃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딸 서원이라도 커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 부부를 보며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 (주)제이에이치라이팅 정주현 대표이사



(왼쪽부터) (주)지맥스 정성우 회장, 박경희 아너,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손녀 정서원, 액트로닉스 이수진 실장, (주)제이에이치라이팅 정주현 대표이사



(왼쪽부터)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이승재 아너, 코렌스그룹 조경진 감사, 하민숙 아너, 조용국 회장, 조형근 대표이사, 박서현 아나운서,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정성우 회장

최초로 6인 동시 가입한 코렌스그룹 회장 일가

부산 사랑의열매 최초로 가족 구성원 6명이 동시에 아너 회원에 가입하며 나눔 역사를 새로 썼다. 전기 자동차 부품, 연료전지 시스템, 백금 나노 촉매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코렌스그룹 조용국 회장 일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조용국 회장을 필두로 부인 하민숙 씨, 큰딸인 코렌스그룹 조경진 감사와 사위 이승재 씨, 아들인 코렌스그룹 조형근 대표이사와 며느리 박서현 아나운서까지 총 6명이 차례로 아너에 이름을 올렸다.

5월 9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아너 가입식에는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부산 아너 클럽 정성우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도 참석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특히 조용국 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 성금 6억 원 기탁,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등 부산과 경남에서 사회 공헌 사업을 활발히 펼치며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이번 아너 가입을 통해 코렌스그룹 회장 일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부산은 물론,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가족과 논의한 끝에 함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어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 코렌스그룹 조용국 회장

이웃을 보살피는 지역사회의 나눔 명사

미진분식 2.28점 임석기 대표의 더 따뜻한 진심

1978년 문을 연 미진분식은 대구 분식계의 터줏대감이다. 40년 넘게 대구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이른바 솔(soul) 푸드로 꼽힌다. 미진분식 2.28점에는 한결같은 맛 외에도 오랜 세월 변치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임석기 대표가 전하는 깊고 따뜻한 나눔이다.

글 이선희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지난 5월 부인 이정미 대표의 아녀 가입을 기념하며 (왼쪽부터) 대구 사랑의열매 김누리 사무처장, 이정미·임석기 대표(부부 아녀), 대구 아너 클럽 신홍식 회장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미진분식

김밥, 우동, 쫄면, 비빔우동 등 미진분식 2.28점의 메뉴를 보면 어느 가게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 평범한 메뉴로 40년 넘게 대구를 대표하는 분식점의 명성을 굳건하게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미진분식 2.28점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다. 이곳을 운영하는 임석기 대표도 그렇다. 매일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도움을 요청한 이웃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며, 소외된 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013년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나눔 활동을 실천하던 중 2018년 대구 사랑의열매 124호 아녀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나

눔의 크기는 한층 더 커졌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해 현재까지 1억 원 넘는 성금을 기탁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결식 방지와 학업을 위한 생계비, 장애 아동의 치료비 등으로 쓰인다.

한 달 중 하루는 남을 위해 살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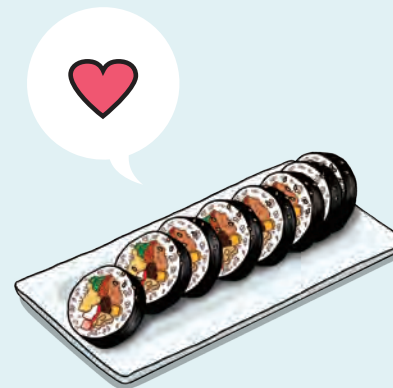
임석기 대표가 이렇게 나눔의 길을 걷게 된 건 어느 이름 모를 노숙인의 동사 사고를 접하면서부터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에 나선 것. 기부금 외에 겨울이 가까워지면 그가 반드시 잊지 않고 추위를 막아줄 외투와 이불을 노숙인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에 전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임 대표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한 달

중 하루는 남을 위해 살아가”며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덕분일까, 가족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까이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코로나19 매출이 급감한 시기에도 그의 가족은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의료진 등 방역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에게 전했다. 또한 지난 5월 11일 남편의 선행에 좋은 영향을 받은 부인 이정미 대표가 아녀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부부 아녀가 되었다. 사실 임석기 대표와 그의 가족이 실천하고 있는 나눔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익명의 기부 활동도 상당하기 때문. 이렇하기에 미진분식 2.28점이 대구의 맛집이자 명소요, 임석기 대표는 지역사회에 없어서 안 될 나눔 명사라고 주변에서 칭송하는 게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문을 연 197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진분식



6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주)예람 강사돈 대표

“꾸준한 나눔, 이제는 회사의 정체성입니다”

혼자서도 하기 힘든 기부를 대표와 직원이 함께 하는 회사가 있다. 심지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중이다. 게다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모자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동에 임한다는 사실. (주)예람과 이곳을 이끄는 강사돈 대표의 특별한 나눔 이야기다. 글 이선희 사진 서범세, 대전 사랑의열매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눔

(주)예람은 1999년 업계 최초로 온라인에서 입찰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건설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건설넷과 전기·통신·소방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넷으로 ‘공고, 분석, 교육, 상담’을 4대 핵심 서비스로 내세운다. 이 외에도 2013년에 온라인 공동 도급 서비스 okEMS를 오픈했고, 영어 학습 서비스 및 영어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세계 17개국에 제공하는 등 내실 경영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

(주)예람이 특별한 이유는 비단 이게 전부 아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6년째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전 사랑의열매에 10억여 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웬만한 중견 기업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희 회사 기업 이념이 ‘이익을 이웃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눈다’입니다. 직원들 월급을 제외하고 얼마간의 이익이 생겨서 기업 이념에 따라 기부를 한 게 시작이었어요.” (주)예람은 강사돈 대표가 대학 시절 종교 동아리에서 만난 선후배와 함께 설립

한 회사다. 뜻하는 바가 같다 보니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2005년부터 기부하기 시작한 (주)예람은 현재까지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정기 기부를 하고 있다. 해당 성금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식사 지원 및 장비 보강 사업 등으로 사용했으며, 저소득 가정에 생계비로 지원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대전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익을 이웃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눈다’는 회사의 기업 이념에 따라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을 전합니다.”

- (주)예람 강사돈 대표



따뜻한 사람들이 만드는 ‘착한일터’

사실 (주)예람의 나눔 활동 하면 2011년부터 이어온 착한일터 기부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 없다. 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모아 매달 대전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며 현재까지 누적 금액이 5,342만 원에 달할 정도다. 기업 차원에서 매달 기부금을 전달하지만, 강사돈 대표는 이와 별개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연한 기회에 착한일터에 가입하게 되었고, 벌써 11년째 이어가고 있다.

“채용 면접을 볼 때 저희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만약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착한일터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고요. 물론 면접장이니 다들 한다고 대답하지만요.(웃음) 그중에도 진심으로 나눔 동참 의사를 밝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상이 아닐까 싶어요.”

착한일터로 모은 기부금은 직원들의 봉사 활동에 사용한다. 뜻이 맞는 직원이 팀을 이뤄 연탄 지원 및 전달 봉사 활동, 김장 봉사 활동, 근육병 아동을 위한 문화 행사 동반 지원, 장애인 사회복지

— 2012년 대전 아너 소사이어티 6호 회원으로 가입한 강사돈 대표

시설 식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한다. 회사에서 시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봉사 활동이 아니다. 방문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예람 직원들이 오면 따로 손댈 곳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한다”며 감탄할 정도다. 나눔은 (주)예람의 조직 문화를 완성했고, 정체성을 확립시켰다는 강 대표의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른손이 하는 일에 왼손도 함께 해야

강사돈 대표가 중학교 때 일이다. 다니던 교회에서 사용하는 종이 망가졌다. 하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망가진 채 불편하게 사용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강 대표는 용돈을 모아 새 종으로 바꿔 놓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에 누구도 그가 종을 바꾼 주인공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당시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따른 것.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2013년, 전국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회의에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2012년 대전 사랑의열매 아너 회원이 되었으나, 그는 주변에 굳이 알리지 않았다. “전국 아너 회원 대표 회의에 참석해보니 지역별로 아너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회원도 많더라고요. ‘좋은 일

— 2018년 아내 박경자 씨가 아너에 가입하면서 부부는 나란히 아너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 대전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들과 함께 한 삼계탕 봉사 활동

을 남모르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바로 주변에 아너 소사이어티를 홍보하며 제 기부 사실도 알렸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해 대전 사랑의열매에 신규 아너 회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최우수 지회상을 받았답니다.” 강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왼손이 모르는 나눔 대신 주변에 널리 알리는 나눔 흥

보대사를 자처한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아너에 가입해 부부 아너 회원이 되었고, 직원들에게는 적은 돈이라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수록 더 많은 이가 나눔에 동참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누는 기쁨을 아는 이도 많아졌으니 강사돈 대표의 이유 있는 변화가 새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

은둔형 외톨이·실직 청년 지원 나선 충북 사랑의열매

니트(NEET) 청년을 위한 '희망찾기 프로젝트'

은둔형 외톨이, 취업 준비생, 실직 청년 등 위기에 놓인 청년들을 돕는 '희망찾기 프로젝트'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충북 사랑의열매의 3년여간의 지원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다. 글강은진 사진충북 사랑의열매

청년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체험과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 참여 의지를 높였다. 사진은 청소 봉사 줄줄 산책 모습



수해 복구 현장에 참여한 청년들

가족에게 가족 상담을, 16명의 가족에게는 가족 이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 결과 참여 종료 인원 112명 중 47명이 취업에 성공하고, 33명이 직업훈련을 시작했으며, 9명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척도 설문 조사 결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의향은 14.3% 향상되고, 사회적 지지 인식 점수는 평균 37.4점에서 41.6점으로 4.2점 상승하는 등 사회 참여 의지와 사회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충북도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충북 청년 NEET 현황과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공론화해 충북 청년희망도약패키지 사업, 청주시 청년마음건강증진 사업, 청년도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성과도 얻었다. 충북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인식 확산과 네트워크 구축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니트(NEET)족을 아시나요?

극심한 취업난으로 구직에 대한 희망은 물론, 의욕마저 꺾인 채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되는 청년들이 있다. 이른바 니트(NEET)족이다. 니트는 영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미취업자이면서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받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사)일하는공동체가 따르면 청년 니트족은 OECD 기준 전체 청년의 18.9%로, 충북에만 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충북 사랑의열매는 2019년 7월부터 (사)일하는공동체가 진행하는 '희망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비(非)구직 니트 청년 지원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19~34세의 청년이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설계·준비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연계 심리 상담, 사회 활동

지원, 취업 지원, 지지 기반 및 환경 개선, 활동 공간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의사회 진입, 지속적 관심 필요

충북 사랑의열매가 3년여간 지원한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은 다양한 성과를 냈다. 먼저 충북 지역 니트 청년 168명을 발굴하고, 그중 143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또 참여 청년의 변화를 위해 8명의



33쌍 장애인 부부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 출발

22년째 진행되는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올해도 어김없이 결혼식을 진행했다.
인생 2막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을
축복이라도 하듯 날씨는 더없이 화창했다.
22년째 진행한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이다. 글 강은진 사진 충남 사랑의열매

공주시 선화당에서 진행된 제22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기념사진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찾아내는 것.”



결혼식 주례를 맡은 성우중 회장

지금까지 483쌍의 부부 화촉 밝혀

지난 4월 28일, 충청남도 공주시 선화당에서 도내 장애인 부부 33쌍의 합동결혼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중 회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공주시 이순종 부시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1,0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충남 사랑의열매 회장을 맡고 있는 성우중 (주)도원이 엔씨 대표이사(이하 성우중 회장)가 우연히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2011년부터 후원을 시작해 올해로 22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서 깊은 행사다. 합동결혼식으로 지금까지 모두 483쌍의 장애인 부부가 화촉을 밝혔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신랑 A 씨는 “19년 만에

결혼사진을 찍으니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가장 고령의 신랑 B(84) 씨는 “지금이라도 비장애인 아내에게 멋진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결혼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기업 후원 이어진 합동결혼식

장애인 부부 합동결혼식은 도내 15개 시군의 등록 장애인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미루어 온 대상자를 신청받아 충남 사랑의열매의 심의를 통해 선정·진행한다. 특히, 합동결혼식은 예물을 비롯해 결혼식 행사비 전액을 지원해온 성우중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을 역임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성우중 회장의 후원 누적 금액은 현

재까지 총 12억 8,300만 원에 달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각각 공기청정기 33대를 추가로 전달해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이 같은 그의 진심은 각계각층으로 전해져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제습기 33대, 천안노산고속도로에서 전자레인지 33대, 신기산업에서 선풍기 33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에서 백미 33포를 기탁하는 등 기업의 후원도 이어졌다.

성우중 회장은 이날 주례사를 통해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찾아내는 것”이라며,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나의 행동도 바꿀 수 있는 각오를 하길 바란다”며 당부와 축복을 전했다. ♣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부터 장학회 사업까지

세종시를 지키는 진짜 키다리 아저씨, 정찬의 원장

서울 토박이임에도 세종시를
고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를 위해 반평생을
헌신해온 세종 5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정비노기과 정찬의 원장이다.

글 강은진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2021년 사랑의다리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과 기념 촬영 중인 정찬의 원장(오른쪽)

22년 동안 지켜온 '사랑의다리 장학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새내로에 위치한 정비노기과 의원 정찬의 원장은 오랫동안 의술은 물론, 나눔과 봉사로 이웃을 위해 헌신한 지역사회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다. 누구는 키다리 아저씨라 부르고, 누구는 훌륭한 분, 또 누구는 진짜 어른이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심 가득 묻어나는 호칭도 여러 개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사랑의다리 장학회'를 빼놓을 수 없다. 2001년부터 22년 동안 장학회 대표를 맡아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세종 한부모가정, 조손 가정 위주의 아동·청소년들이다. 무



사랑의다리 장학회는
한번 선발되면 대학까지,
길게는 10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며 아이들을
보살핀다.

“서울 토박이인
내가 사랑의다리
장학회를 두고
세종시를 떠날
수는 없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인재를 위해
투자하는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

- 정찬의 원장

엇보다 정찬의 원장은 일시적으로 돈만 지급하는 일반 장학회와 달리 한번 선발되면 대학까지, 길게는 10년간 장학금은 물론 매달 모임을 통해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캠프를 진행하며 전문 강사까지 초빙해 아이들의 꿈과 진로 찾기를 돕는 등 남다르게 보살펴왔다. 충분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족을 차려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준다.

하는 그의 따뜻한 나눔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토박이인 정찬의 원장은 흥성리로 원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충청도와 인연을 맺고, 22년 전 당시 연기군 시절 초빙해 아이들의 꿈과 진로 찾기를 돕는 등 남다르게 보살펴왔다. 충분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족을 차려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준다.

나눔과 봉사로 헌신해온 삶

정찬의 원장은 장학 사업 외에도 후원회를 조직해 지역 장애인 단체를 꾸준히 돕고 있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세종 사랑의열매 5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기부 의 폭을 넓혀갔다. 이런 그의 멈추지 않는 선행은 2014 대한민국나눔대상, 2016년 세종시민대상, 2017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2018년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으로 이어졌다. 지역사회를 지키고자

세종 사랑의열매
제5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정찬의 원장.
사진은 가입식 모습



6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청년 베이커리 카페 '빵그레'

성실하게 꿈과 희망을 굽는 청년들

깔끔한 매장 분위기, 솔솔 풍기는 고소한 빵 냄새와 향긋한 커피 향,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운 다양한 빵까지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광주 '빵그레'다. 얼핏 봐선 여느 빵집과 다를 바 없지만, 이곳은 평범한 빵집이 아니다. 청년들이 정성을 다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굽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그래서 참 소중한 공간이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 빵그레를 지원하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응원이 담긴 현판들

기업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만든 빵그레

유명 빵집을 다니는 '빵지순례',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빵식(食)' 등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 이제 빵은 단순한 부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런 영향을 받아 제빵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동구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 역시 제과·제빵에 관심이 높았으나, 현실적 이유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던 2020년 8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하이트진로(주)가 청년 창업 프로젝트의 첫 도전으로 2020년 5월 창원시에 베이커리 카페 빵그레 1호점을 오픈했다. 오픈 100일 만에 월 매출 1,5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경영 안정화에 접어들자 하이트진로(주)에서 빵그레 2호점 오픈을 결정했다. 많은 지자체로부터 제의가 쇄도했으나,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온 광주광역시와 손잡기로 했다. 이어 사업 공모를 통해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가 선정되었고, 광주 사랑의열매와 광주동구청이 각 지원에 나섰다.

베이커리 카페는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 고가의 비품 장비, 매장 인테리어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맛과 품질을 위해 숙련된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주)의 지원 덕분에 예산은 확보했으나, 문

빵 그 레

BAKERY CAFE



— (왼쪽부터)빵그레 매장팀 장지영,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이수정 센터장, 공장팀 이현민 팀장



— 빵그레는 빵을 만드는 공장팀과 매장 관리·판매, 카페 업무를 담당하는 매장팀으로 나뉜다.

제는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광주동구청과 광주동구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에서 유명한 베이커리 중 하나인 공전제과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전제과 측에서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며 청년들의 제빵 교육을 맡았고, 이후 서구의 그랑팔레 김근석 오너셰프의 도움을 받으며 빵그레 2호점 오픈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0월 2호점이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청년들

광주 빵그레에서 일하는 10명의 참여자는 모두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 의지를 밝히고 준비해온 취약 계층 청년들이다. 빵그레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들 중 상당수는 출퇴근을 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소속감도 약하고, 직장이란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수정 센터장을 비롯해 광주동구지역자활

“빵그레는 저에게 생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보낸 시간보다 팀원들하고 보낸 시간이 더 많기도 하고요. 지금 팀원들과 함께 만드는 빵 외에도 열심히 연구해서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 공장팀 이현민 팀장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지 2년이나 지난 터라 빵그레에서 커피를 내릴 때 무척 떨렸어요. 하지만 커피를 내릴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에겐 아주 소중한 일터인 만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청결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 매장팀 정지영



— 깔끔한 인테리어로 신뢰감을 주는 빵그레 매장

센터 직원들은 청년들이 빵을 만들고, 커피를 내리는 순간에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이 생겼다고. 함께라면 분명 할 수 있다는 확신 말이다. 맛있는 빵을 잘 만드는 게 어디 하루아침에 될까. 거둬진 실패 끝에 비로소 동그란 빵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조금씩 성장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

다. 또한 누군가는 반죽을 하고, 누군가는 성형을 하는 등 여럿이 차츰 손을 맞춰가며 팀워크를 발휘하는 등 빵그레 안에서 이들은 자활 청년이 아닌 '청년'이 되어가는 중이다.

모두의 꿈이 부풀어가는 시간

하이트진로(주)는 광주 빵그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외부 지원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자립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빵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 파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는 빵그레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빵 만드는 공장팀과 매장 관리·판매 및 카페 업무를 담당하는 매장팀으로 나눴다. 매장팀은 손님을 직접 응대하며 빵그레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중이다. 모두의 염원 덕분일까? 빵그레를 찾는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는 등 기분 좋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광주 빵그레가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곳곳을 발로 누빈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이수정 센터장은 최근 또 다른 꿈을 품었다. 현재는 외부에서 제빵 교육을 진행하지만, 언젠가 빵그레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에게 제빵 기술을 알려주며 자립을 돕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수정 센터장의 꿈은 빵그레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덕분에 조금씩 부풀어가는 중이다. 🍷

*광주 빵그레는 6월부터 '두검베이크리'로 상호명 변경

전북일보배 아마추어 골프 대회

소아암 환우를 위해 나눔으로 나이스 샷

한때 자선 골프 대회로는 기부금을 모으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 영국처럼 국내에도 자선 골프가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그 선두에는 소아암 환우를 돕고자 매년 개최하는 '전북일보배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있다.

글 이선희 사진제공 전북일보사

전북일보배 아마추어 골프 대회 참가자들이 모금한 성금 3,000만 원은 대회 당일 전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미스 샷이 나와도 웃음이 가득한 대회

전북일보배 아마추어 골프 대회는 지난 2018년 소아암 환우를 돕기 위해 처음 시작했다. 국내에는 자선 골프가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여봐란듯이 잠식시키고, 지금까지 총 1억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는 난치병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많은 소아암 학생에게 따뜻한 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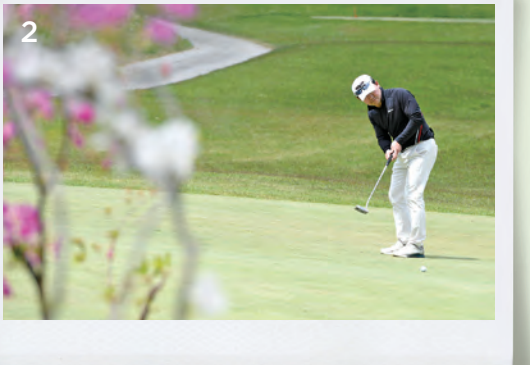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을 실천하고자 다섯 번째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9일 전주 상그릴라CC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골프 동호인 70개 팀 280여 명이 참가해 소아암 환우를 돕기 위한 아름다운 대결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뜻깊은 취지로 진행하는 만큼 좋은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각보다 경기가 풀리지 않거나 평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호쾌하게 웃어넘길 정도로 어느 대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되었다.

올해도 풍성하게 모인 따뜻한 마음

골프 대회에 출전한 참가자들은 소아암 환우를 돕기 위해 3,000만 원을 모금해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특히 제이앤지 박종우 대표는 3년 연속 자선 골프 대회 행사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고, 농협 전북본부 1,000만 원, 전북지방법무사회 이형구 회장이 성금 200만 원, 다오코리아가 100만 원을 더해 뜻을 함께했다.

대회를 주최한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은 “소아암 환우를 돕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행사가 어느덧 5회째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선 활동을 마련해 소외 계층에 도움이 손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로 모금한 3,000만 원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후원회를 통해 소아암 환우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부디 많은 이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진 성금이 소아암 환우들에게 희망으로 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170개 팀 280여 명이 참가한 골프 대회 2경기에 집중한 참가자 모습

“앞으로도 더 많은 자선 활동을 마련해 소외 계층에 도움이 손길을 전달하겠습니다.”

-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는 '행복소통버스'

“부릉부릉,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달립니다!”



1 의료 장비를 갖춘 행복소통버스 모습 2 주민에게 법률과 민원 상담도 제공한다.

도민의 의료·복지 해결사
'행복소통버스'가 전남 전역을 누빈다.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복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글 강은진 사진 전남 사랑의열매

이젠 찾아가는 복지 시대

전남 사랑의열매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찾아가는 행복소통버스' 사업비 3억 5,300만 원을 지원했다. 찾아가는 행복소통버스는 전남 사랑의열매의 2022년 기획 사업으로, 의료 장비를 갖춘 버스가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도서 및 산간 오지 마을 복지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다. 코로나19 예방 활동, 기초 검사, 양·한방 진료, 체성분 분석, 치매 선별 검사, 의료 상담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전자 기기 수리 등 일상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전체 섬 개수의 약 65%를 차지하는 2,165개 섬이 있다.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도서 지역이 가

장 많고, 고령 인구 비율도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의료와 복지 등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이에 전남 사랑의열매는 직접 주민을 찾아가 주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

도민과 소통하는 창구로도 활용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행복소통버스 사업은 지금까지 12명의 인력을 투입해 도내 오지 및 산간벽지 등을 순회하며 주 3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복소통버스를 통해 기초 검사 및 치매 검사 등이 포함된 의료 서비스부터, 이·미용과 틀니·돋보기 세척 등 복지 서비스, 법률·민원 등 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하는 배분 사업이

라는 점과 지역 및 대상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재난 상황 및 긴급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다. 이동형 종합복지관 역할을 톡톡히 하는 행복소통버스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의료, 문화 격차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

다. 또 전라남도를 통해 의사, 법률·행정 상담사, 간호사, 기타 전문가 등 고급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만큼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성과다. 전라남도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소통버스는 계속 달릴 것이다. ♣



3 미용 서비스를 받는 도서 지역 주민
4 네일 아트는 물론 틀니와 돋보기 세척까지 받을 수 있는 행복소통버스



“전남 지역 22개 시군
도서 및 산간 오지
마을을 구석구석
다니며, 도민 모두가
기본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 - 전남 사랑의열매

제주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ESG 경영 실천하는 광동제약

“제주 청정 자원,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광동제약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제주 청정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보호부터 도민을 위한 기부와 봉사 활동까지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글 강은진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광동제약의 사랑의 음료 나눔 행사. 사진은 2022년 2월 전달식 모습



“광동제약은 제주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광동제약 삼다수사업부문 기준모 상무



제주의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설수 설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광동제약. 사진은 2021 성금 기탁식

제주와 맺은 특별한 인연

제주를 위한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의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광동제약은 1963년 설립 이래, 전통 의학의 현대화와 독창적인 의약품 개발, 첨단 신약 도입은 물론 다양한 건강음료 개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휴먼 헬스케어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다. 한방 기반 일반·전문약품 개발과 백신 판매유통, 국민음료로 사랑받고 있는 비타500, 대한민국 대표 차 음료 광동옥수수수염차, 헛개차의 개발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제주삼다수 도외 지역 유통으로 제주도와 인연을 맺은 광동제약은 다방면의 기부 활동은 물론, 제주 청정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보호와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제주의 지하수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특성을 살려 수자원 절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동제약은 2020년 말, 제주 사랑의열매에 4,000만 원을 기탁해 1년간 제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50개소에 절수기를 설치했다. 또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과 가정 등의 노후 화장실 개선 활동도 펼쳤다. 절수기 설치 사업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제주의 실정에 알맞은 사업으로, 화장실 내 절수기를 사용하면 물 사용량을 약 25%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광동제약은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말, 4,000만 원의 추가 재원을 기탁하고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에 절수 번기를 설치하며 자원 가치 보존 사업을 지속해나갔다.

음료 나눔부터 장학 사업까지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사랑의 음료 나

눔 행사도 유명하다. 광동제약은 매년 1억 원 상당의 음료를 기탁, 도내 노인지원센터·아동복지 기관·푸드뱅크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왔다. 또 지역사회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우리동네 푸드트럭’에도 음료를 꾸준히 기부해 지금까지 8만 병 이상의 의약품과 음료를 이웃들에게 전했다.

이 밖에도 광동제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도내 학생을 위한 2억 원의 장학금 지원과 대학생 인턴 기회 등 장학 사업과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 도내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농가 발전을 위한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이처럼 광동제약은 ESG 경영 활동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제주를 위한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2889호(경기 285호)



박천광 제일장례식장 대표이사
“나눔,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국 2892호(울산 112호)



김태현 고려철강(주) 대표이사
“행복한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전국 2893호(울산 113호)



김형욱 (주)한송개발 대표이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나눔이야기입니다.”

전국 2894호(중앙 365호)



이강인(주)이화실업 회장
“삶에 나눔의 무늬를 오롯이 새기고자 합니다.”

전국 2895호(대전 98호)



허 임인순
“잠시 머물며 큰 행복을 주신 입을
우리 모두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전국 2897호(서울 359호)



박보영 BH엔터테인먼트 배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2898호(대구 204호)



김은주 (주)신행 대표이사
“나눔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전국 2909호(대구 205호)



이정미 미진분식 2.28점 대표
“항상 이웃과 더불어”



(왼쪽부터) 전국 2904호(부산 260호) 이승재, 전국 2903호(부산 259호) 조경진 코렌스그룹 감사,
전국 2902호(부산 258호) 하민숙, 전국 2901호(부산 257호) 조용국 코렌스그룹 회장
전국 2905호(부산 261호) 조형근 코렌스그룹 대표이사, 전국 2906호(부산 262호) 박서현 아나운서

“함께할수록 커지는 나눔,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입니다.”

- 부산 나눔명문가 코렌스그룹 조용국 회장 일가

서울 윤재용 양재해장국 대표

중앙회



(주)우아한형제들, 배달 라이더 의료비 지원금 전달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의장 김봉진)이 성금 1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김봉진 의장이 사재 20억 원으로 조성한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을 통해 오토바이·자전거·전동 킷보드 등으로 음식을 배달하다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라이더를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은 2022년 12월까지 3차 연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이번 기부금 1억 원을 포함해 총 4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전국의 음식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중위 소득 140% 이하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 카카오톡 채널과 신나는조합 성장지원팀, 병원 내 의료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이 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에게 사고 시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더 많이 알리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 골퍼 이정은6, 아너 가입 통해 선한 영향력 전파

LPGA(미국여자프로골프)에서 맹활약 중인 프로 골퍼 이정은6가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사랑의열매 아너로 가입했다. 지난해 12월 2,000만 원을 기부하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은 이정은6 골퍼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더욱 큰 나눔을 실천하고자 아너 가입을 결심했다. 이번 성금은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 등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피해민들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가입식에서 이정은6 골퍼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아너로 가입하게 돼 영광이며, 기부를 통해 좋은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메이저 대회 우승 및 신인상 수상 등 뛰어난 기량을 펼치고 있는 그녀는 2016년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 데뷔 이후 장애인 협회, 고성 산불 피해 지원, 골프 인제 육성 등에 3억 원 이상을 꾸준히 기부한 바 있다.



서울



배우 김선호 팬 카페,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지난 5월 8일 배우 김선호의 생일을 맞아 네이버 팬 카페 '선호생각' 회원들이 기부금 1,000만 원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며 서울 24호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성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의 의료비 지원과 재활 치료비로 쓸 예정이다. 팬 카페 매니저는 "김선호 배우의 생일을 맞아 선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며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씨젠의료재단,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나눔 실천

(재)씨젠의료재단(대표의료원장 한규섭)이 서울 사랑의열매 35호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한규섭 대표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 국가 감염증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재)씨젠의료재단은 국내 최대 진단 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방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



플래닝센터(주), 여성 기업 최초 나눔명문기업 가입

플래닝센터(주)(대표 김효영)가 여성 기업 최초로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부산 최대 규모의 한샘리하우스를 운영하는 플래닝센터(주)는 고객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기업으로, 고객에게 보답하는 마음에서 이번 나눔을 실천했다. 기부금은 부산 지역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과 깨끗한 부산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복지 기관에 차량 18대 지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가 부산 지역 사회복지 기관 18곳에 차량을 지원했다. 공모 절차를 거쳐 차량이 필요한 기관을 선정했으며, 일반 승합차 7대와 어린이용 승합차 7대, 경차 4대 등 각 기관이 희망하는 차량을 전달했다. 이번 차량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아동 등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



(주)썬텍엔지니어링, 산불 피해 극복 성금 기탁
 물 관리 전문 기업 (주)썬텍엔지니어링(대표이사 손창식)이 대구 사랑의열매에 강원·경북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산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지역의 저소득 주민에게 전액 지원했다. 손창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산불 피해까지 겹친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다 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 성금 4억 원 쾌척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회장 김상태)가 강원·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4억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쾌척했다. 지난 3월 소속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벌여 마련한 성금은 피해 지역의 저소득 주민을 위해 쓸 예정이다. 김상태 회장은 “대구상공회의소 소속 회원 기업들이 심시일 반 모은 성금이 피해 주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



피치씨, 1,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지원
 (주)유패럿(대표 송호빈)이 자사 코스메틱 브랜드 피치씨 화장품 5,333개를 인천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화장품은 (사)여성인권 동감, 인천광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한부모 가정 및 자활 근로자 여성에게 전달했다. 송호빈 대표는 “앞으로도 기업 운영뿐 아니라 지역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어린이날 선물 전달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장진호) 회원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5월의 산타가 되어 해피홈보육원을 방문했다. 아너 회원들은 직접 준비한 어린이날 선물과 함께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성금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여의치 않은 보육원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매년 봉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광주



한국경영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돕기 성금 기탁
 건설업 4대 보험 업무 대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국경영원(대표이사 김보현)이 광주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한국경영원은 희망나눔캠페인과 산불 피해 복구 돕기 모금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펼치고 있으며, 김보현 대표이사는 아너 회원으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연합 모금 업무 협약 체결
 광주 사랑의열매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복지 발전을 위한 연합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급식 지원과 소상공인 상생 지원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은 6월 30일까지 진행하며, 모금한 성금으로 돌봄 이웃에게 6개월간 도시락과 비식량 세트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



故 임인순 여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故 임인순 여사가 대전 사랑의열매 98호 아너가 됐다. 40대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故 임인순 여사와 짧은 부부의 연을 맺은 이청로 씨가 고인의 이름으로 아너 회원에 가입한 것. 이청로 씨는 “고인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어왔다”며 “현재 여생을 함께하고 있는 아내가 흔쾌히 응원해주어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고 부인 장영희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2022년 신청 사업 배분금 전달식
 지난 5월 16일 대전 사랑의열매가 2022년 신청 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사업 선정기관 15개소의 각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교육을 실시했다. 복지 현장의 긴급 상황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 선정 기관 8개소에 9,887만 5,600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보강 및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선정 기관 9개소에 4,034만 3,190원을 지원했다.

울산



울산항도선사회, 이웃 돕기 성금 전달

울산항도선사회(회장 정병일)가 울산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 3,100만 원을 기탁했다. 울산항도선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매년 고액의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정병일 회장은 “올해도 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해주신 울산항도선사회 회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이웃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10주년 기념 총회 개최

울산의 기부 문화를 이끄는 나눔리더들의 모임인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박환규)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총회를 개최했다. 2008년 1호 회원의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명의 회원이 가입한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개인 기부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매년 총회 및 봉사 활동을 통해 울산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



박천광 대표이사, 아너 가입으로 나눔 행보 이어가

안산제일장리세식당 박천광 대표이사가 경기 사랑의열매 285호 아너로 가입했다. 그동안 성금 및 쌀 나눔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던 박천광 대표이사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산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복 지원에도 앞장섰다. 안산제일장리세식당 회장인 부친의 나눔 행보를 보며 그 뜻을 이어가고자 아너 가입을 결심한 그는 “두 아들에게 숭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동우화인켐(주), 보육원 아동 위한 성금 기탁

동우화인켐(주)(대표 라인호)가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사랑의열매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평택 성육보육원에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동우화인켐(주) 관계자는 “보육원 아동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기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동우화인켐(주)은 2018년 경기 사랑의열매와 사회 공헌 협약 체결하고 매년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북부



파주시청소년재단, 창립 1주년 기념해 착한일터 가입

파주시청소년재단이 지난 5월 14일 파주운정호수공원에서 개최한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재단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가입 성금은 파주에서 성년을 맞은 청소년의 일자리 사업, 위기 가정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반찬 나눔, 벽화마을 조성 등의 활동을 펼쳐온 파주시청소년재단은 복지사업의 영역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주)영우산업, 착한일터 동참으로 이웃사랑 실천

안전 체험 장비 생산 및 설비 전문 기업 (주)영우산업(대표 오영현)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동참했다. 지난 5월 11일 열린 가입식에서 오영현 대표는 “우리 회사는 건설과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기업이지만, 안전은 사회 전 영역의 기본이 되는 필수 요건”이라며 “성금이 취약 계층의 안전을 돌보는 사업에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강원



평택시 서정리 전통시장상인회, 산불 구호 성금 기탁

평택시 서정리 전통시장상인회(회장 객진석)가 강원 사랑의열매에 산불 구호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상인회 역시 코로나19 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에 나섰고, 회원들은 십시일반 뜻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객진석 회장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전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이재호)가 강원 사랑의열매에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243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호 회장은 “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재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충북



LG화학 청주공장, 청주페이 1,000만 원 기탁

LG화학 청주공장이 청주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LG화학 청주공장 최종완 상무는 “코로나19와 치솟는 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며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성금은 청주시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10만 원씩 총정한 청주페이로 지급했다.



두산종합건설, 진천군 착한가게 200호 주인공

두산종합건설(대표 최원규)이 충북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하며 진천군 착한가게 200호의 주인공이 됐다. 최원규 대표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던 중 진천군나눔봉사단을 통해 착한가게를 알게 되어 가입을 결심했다”며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지역 이웃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전북



지역아동센터에 2022년 기획 사업 지원금 배분

전북 사랑의열매가 아동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단장 박신애)에 1억 3,340만 4,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배분금은 도내 27개소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해 모금한 성금에 전북 사랑의열매의 지원금을 더해 마련했다. 27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한 지원금은 센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가수 영탁 팬클럽, 어린이날 맞아 희망꾸러미 선물

인기 트로트 가수 영탁의 공식 팬클럽 ‘영탁이 딱이야’의 전북 지역 모임인 ‘전북내탁’ 회원들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가수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을 기념해 전주 영아원에 200만 원 상당의 희망꾸러미 50개를 선물한 것. 전북내탁 회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영아원 아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남



2022년 복지 현안 우선 지원 사업 배분금 전달식

충남 사랑의열매가 2022년 복지 현안 우선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7개소에 6,011만 3,000원을 배분하고 사업 수행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충남 지역의 긴급한 사회문제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하반기에 2차 사업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장애인 위한 후원금 기탁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본부장 황우선)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충남 사랑의열매에 1,385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황우선 본부장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걷기 기부 챌린지에 동참해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금은 태안군장애인복지관에 전달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전남



(주)유테크,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 물품 기탁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기업 (주)유테크(대표 이정태)가 전남 사랑의열매에 3억 7,060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기탁했다. 기탁받은 물품은 손 소독제 12만 8,000개와 마스크 170만 장으로, (주)지지티비(대표이사 박용선)가 운송비를 후원해 전남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배분했다. 이정태 대표는 “지속적으로 나눔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남도치과의사회, 이사랑모으기 캠페인 성금 전달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가 이사랑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 3,519만 8,400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지역 곳곳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며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원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로 마련했으며,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북



울진 산불 피해 극복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경북 사랑의열매에 울진 산불 피해 지역과 이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중소기업연합대구경북연합회(회장 강환수)가 2,013만 원,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손재현)이 1,000만 원, 경북지구JC특우회(회장 강종화)가 1,000만 원을 전달하며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기원했다.



한수원(주)한울원자력본부, 이웃사랑 행복나눔 성금 전달

한수원(주)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 이하 한울본부)가 직원들이 모은 성금 7억 1,276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 중 2억 3,800만 원은 우수한 봉사 단체 활동과 복지 기관 및 시설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며, 나머지 성금은 집수리 및 방역 소독 등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쓸 예정이다. 한울본부는 지금까지 약 19억 원을 기탁하며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경남



희망2022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실천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

경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4월 22일 희망2022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실천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감사패 전달식은 2019년에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각 시군을 통해 연말 캠페인 기간 동안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를 추천받으며, 이번에는 총 10곳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은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故 안준호 씨, 아녀 가입으로 나눔의 의미 되새겨

故 안준호 씨가 경남 사랑의열매 143호 아녀가 됐다.故 안준호 씨는 2019년 서울 목동 빗물 배수 시설 수물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공사 현장에 갇힌 근로자 2명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 그의 아내는 생전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한 남편의 뜻을 받들고, 그의 희생을 오래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고인을 아녀 회원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제주 작가 이월중 화백,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 기탁

제주의 정겨운 모습을 담아내 '제주 작가'로 불리는 이월중 화백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시회 수익금으로 마련한 성금은 도내 아동 양육 시설 2개소에 전달했으며, 아이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쓸 예정이다. 이월중 화백은 성금과 작품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 사랑의열매, 배분 설명서 발간으로 기부 이해도 높여

제주 사랑의열매가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2 제주 사랑의열매 배분 설명서>를 발간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발행한 배분 설명서에는 기부금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원스텝 배분 시스템을 비롯해 분야별·사업별 배분 현황, 기부 참여 방법 등 기부금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했다. 해당 책자는 제주도 내 주요 청사와 주민복지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세종



한화솔루션(주) 세종사업장, 백혈병·소아암 환자 지원

한화솔루션(주) 세종사업장이 세종 사랑의열매와 백혈병·소아암 환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백혈병·소아암 환자를 위한 병실과 감염병 예방, 입원 키트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주) 세종사업장은 앞으로도 환자와 환자 가족의 마음에 공감하며 더 큰 격려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청·한국자산관리공사, 금강변 환경 정화 활동 실시

지난 5월 9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60여 명이 세종시 금강변 일대에서 '행복 나눔, 맑게 줌김'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줌김은 쓰레기 줌기와 트레킹을 병행하는 것으로, 이날 임직원은 금강 변과 금강 보행교 주변을 청소하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봉사 활동에 앞서 두 기관이 500만 원씩 모아 마련한 성금 1,000만 원을 세종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일상속 작은 불편을 통해 바꾸는
지구의 미래

일회용 컵,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등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직도 많다. 우리의 편리함으로 인해 지구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심지어 바다에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침투해 해양 생물이 고통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연은 조상한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미래 세대에 깨끗한 자연을 되돌려주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 모두 조금 불편해지는 건 어떨까.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새나라, 새일꾼
신입직원 김예설 Yes, sir!
4화 - 첫 프로젝트!

예설 주임이 사랑의열매 첫 콜라보레이션을 담당하게 됐어요.

콜라보레이션 목적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이니까 패션 쪽 어떨까요?

의류 좋네요. 저는 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의견 나눠봅시다!

티셔츠나 후드티 같은 거요.

'사랑의열매맛'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름 음료는 맥주가 딱이지 않을까요?! 과일 향 나는 맥주도 많으니까요.

맥주라...

맥주는 10대에게 어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 그럼 배지는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랑의열매 하면 모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배지잖아요?

배지 좋네요. 그럼 어디랑?

역시 캐릭터죠!

어제도 퇴근길에

코코아프렌즈샵에 재미 엄청 길게 선 걸 봤습니다!

오, 코코아프렌즈 좋네요. 제가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인 기부자이기도 하니까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겠는데요?

패션 음료 반팔 후드티 맥주...?

의기양양

코코아프렌즈와 배지라... 아이디어 좋은데요, 예설 씨?

글·그림 오동진

다음 화에 계속...